

재난이 어떻게 가족 관계와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나',

4 인사말

I. 여성의 삶. 나의 가족이야기 공모

- 9 • 코로나, 그 아이러니함에 대하여 / 강지수
- 12 •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빈다! / 김종금
- 15 • 코로나식 팔순잔치/피서지에서 생긴 일 / 김주성
- 19 • 코로나 물렸거라. 우린 홈파티 한다 / 심춘자
- 22 • 코로나 여성 시대 / 오경미
- 26 • 코로나라 힘들다고? 마음은 지키자! / 이주영
- 29 •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아파도 꽃은 피어납니다 / 전신실
- 32 • 코로나가 바꿔 놓 나의 삶 / 전진숙
- 34 • 사람이 너무 그리운 시간입니다 / 한숙희

II. 수원여성 코로나19 생존 토론회

[주제발제]

- 39 • 코로나19 이후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
 / 정혜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토론]

- 61 • 코로나 시대!! 좋은 돌봄에 대한 고민들
 / 김경임(숙지노인복지센터장)
- 66 • 코로나19와 여성 노동
 / 김경희(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 70 • 포스트 코로나. 우리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 박성희(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 72 •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나
 / 이주영(통역프리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수원시 양성평등 사업을 마치면서...

유명화 (사)수원가족지원센터장

2019년 말 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재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재난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피해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방역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예방주사약을 구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국가에, 그리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부분 국가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떠 넘겨 실제적으로 가족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가사노동 및 돌봄을 떠 맡고 있는 여성에게 코로나 19는 더 크고 더 고통스럽고 힘겹고 가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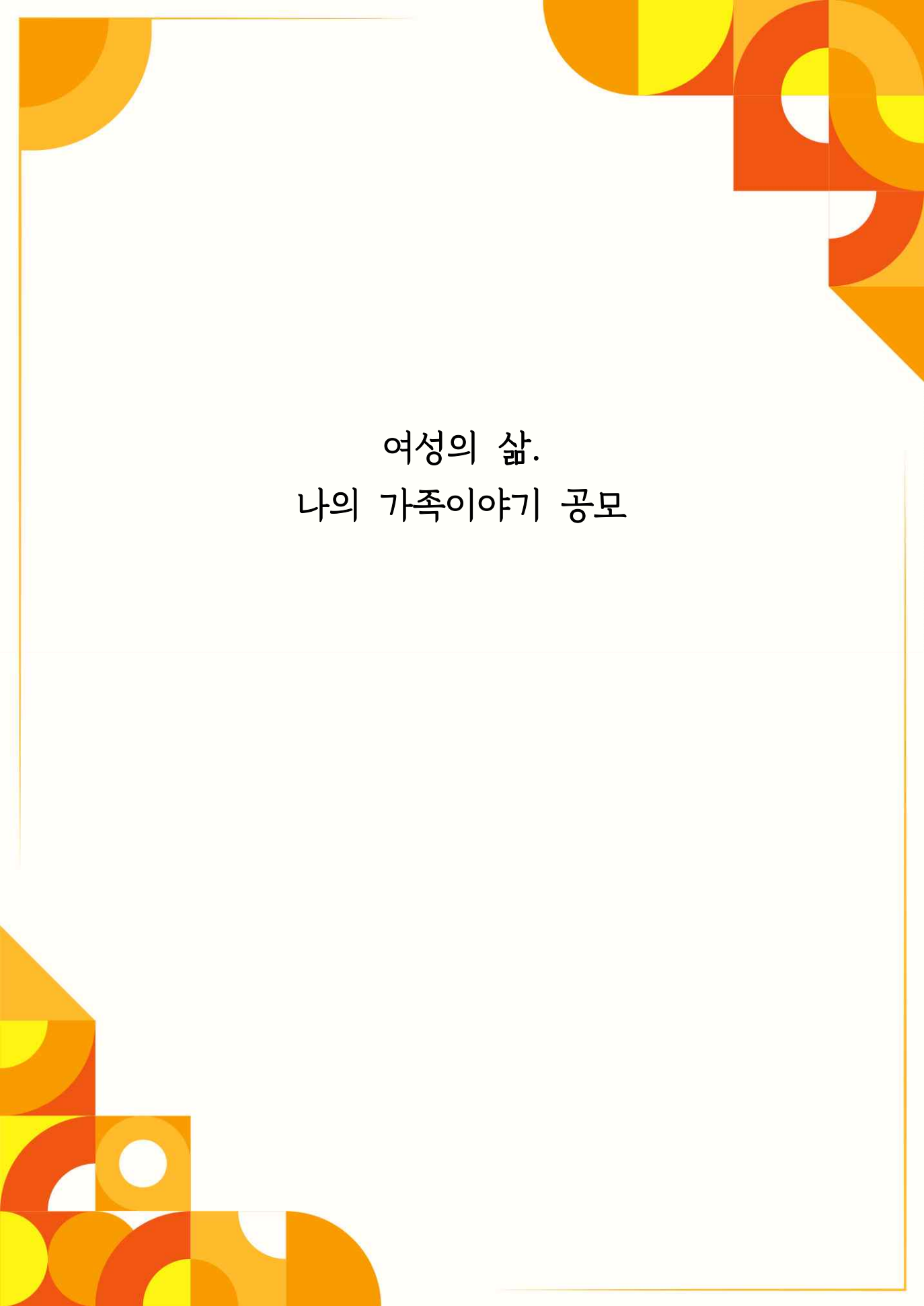
재난은 양성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유엔여성기구 마리아홀프버그의 주장은 한국 현실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성 취업 유형이 비정규직, 직종으로는 대부분이 돌봄 관련 노동에 종사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시장을 포함 일상이 섰다운데되면서 일차로 노동 시장에서 퇴출 되고 한편 고위험 노인층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부 돌봄 종사자에게는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는 대 혼란을 경험한 시기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가족에게 맡겨진 재택근무, 인터넷 강의 등은 가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사노동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의 강의를 위한 인터넷 환경 설치문제부터 강의 시간을 확인하고 종일 먹을 것을 챙기는 등 전업주부이든 직장을 변행하는 주부이든 너무 힘겨운 시감이었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안 나오고 있지만 일상이 섰다운데 이시기 가

정폭력이 크게 증가했다는 외신 보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에 사단법인 수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 펜더믹을 견뎌내는 가족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는 가족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실제 가족 삶은 안녕하신지를 묻기 위해 공모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언젠가 다시 올 수 있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가족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보다는 공모 수기가 저조해서 아쉬웠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모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펜더믹이 인류 역사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요구되는지 나누는 자리가 되고 이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한옥자 서울사이버대학 석좌교수님과 주제를 발제하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정혜원정책연구실장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경희 수원시여성복지센터장님, 김경림 숙지노인복지센터장님, 박성희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이주영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나' 공모 당선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의 삶.
나의 가족이야기 공모

코로나, 그 아이러니함에 대하여

강지수

23년. 엄마가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햇수이다.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즈음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를 하고, 자식 셋을 키우고, 오늘 이날까지도 하루 세 끼를 차리며 살고 있다. 이런 집에서 아빠라도 자상했으면 숨통이 트였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빠는 가부장적 사회의 평범하고 고지식한 남성이었다. 엄마는 잠깐 학습지 선생님이로 일했었는데 엄마의 회식을 용납할 수 없었던 아빠는 엄마를 그만두게 했다. 몇 개월의 짧은 사회생활을 끝으로 엄마는 오늘날까지 전업주부로 살고 계시다. 엄마가 마음 놓고 누리는 자유시간은 매일 아침 10시, 만성 허리 통증으로 다니고 있는 수영장에 가는 시간뿐이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가족들의 크고 작은 계획들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퇴사 이후 터진 코로나에 결정된 재취업이 미뤄지고 있었고, 필리핀에 있었던 동생은 급하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가뜰이나 삼시 세끼 차리는 것도 일인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식구가 두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동생은 입국을 했기 때문에 2주 동안 엄마가 밥상을 차려 문 앞에 대령해야 했다. 이미 예약한 해외여행도 두 개나 취소했다. 그중 하나는 외가 식구들끼리 처음 가기로 한 여행이어서 엄마는 많이 속상해했다. 힘들게 사는 이모를 늘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의 유일한 탈출구인 수영장은 문을 닫았다.

수영장이 문을 닫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다. 코로나 시국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수영도 같이 해봤고, 필라

테스도 같이 다녀봤지만 달리기는 조금 달랐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 나가는 동맹관계랄까. 달리면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생 때는 나가살았고,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내 삶을 살아나가느라 엄마의 힘듦을 들어줄, 나눠가질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재취업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엄마와 거의 매일 점심을 먹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게 되었던 것 같다. 수영장 문을 닫게 한 코로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와 나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또 있었다. 엄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아침이 오면 밥을 차려야 했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으면 늘 반찬을 새로 하곤 했다. 할머니는 그저 엄마가 해준 반찬이라면 잘 드셨는데도 엄마는 항상 눈치를 봤다. 이 와중에 수도권외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아빠는 할머니를 충북 고모네에 잠시 보내야겠다고 했다. 고령 사망자가 속출하는 와중에 가족들이 할머니에게 코로나를 옮길까 봐 걱정이 됐던 것이다. 할머니는 몇 주간 고모네 집에서 지냈고 그동안 엄마는 밥 차리는 일에서 잠시 해방이 되었다. 엄마는 이때 동안 아침 늦게 일어나 빵에 커피를 마시는 일상을 가지고는 했고, 우리는 저녁으로 배달음식과 함께 늦게까지 티비를 보며 떠들곤 했다. 할머니는 늘 시끄러우니 일찍 자라고 했고, 호심이 가득한 아빠는 그때마다 우리를 조용히 시키기 바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정말 드물었다. 편했고, 자유로웠고, 또 편했다. 일상 속의 휴가 같은 이 기분을 할머니가 없어야 느낄 수 있다니, 그리고 그게 코로나 때문이라니 헛웃음이 나오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마지막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거리두기는 온 가족의 통금시간을 정해주었다. 약속이 있어도 무조건 10시에는 파하니, 11시 전에는 모두 집에 귀기했다. 그러고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는 했다. 오늘 회사에서 먹었던 점심이 어땠는지, 우리 집 막내인 강아지 타리가 산책 가서 어떤 강아지 친구를 만났는지, 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약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반찬을 준 이야기……. 종종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는 아빠는 이제 그만 떠들고 자라고 했지만, 엄마는 늘 졸린 사람만 가서 자라며 매일 이렇게 가족 들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새삼 느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말하지 않고 살았구나. 수영장과 집만 왔다갔다하는 엄마

는 얼마나 심심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엄마는 내가 집에 오면 오늘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는지 늘 묻곤 했다. 하지만 가끔 나는 회사에서 집에 돌아오면 단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아니, 사실 가끔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 그때마다 대충 대답하고 말았다. 혹은 엄마의 계속되는 질문 공세에 그만 말 시키라며 짜증을 냈었고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미안했다. 지난날의 나를 원망하면서 거리두기가 고맙게 느껴졌다. 거리두기가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을 보장해 준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모든 계획을 뒤흔들며 사람들과의 사이를 멀게 만들었고, 낯선 사람은 더 낯설게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족에게는 꽤나 나쁘지 않은 존재였다.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가지지 못했던 시간을 가지게 했고 특히나 엄마에게는 잠깐 숨 쉴 수 있는 휴가를 선물했다. 이 기회를 계기로 우리는 즐겁게 대화하는 방법도 배웠다. 가족으로서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시기에 마침 코로나가 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점도 정말 많이 있었지만 지난 일 년 반 동안 우리 가족은 몇 배로 가까워졌다. 코로나로 인한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보다는, 가족안의 평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 결국 가족 안에서 위로받는 것은 나 스스로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 가까워진 우리 가족이 마음 편히 여행 가서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상상을 해본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빈다!

김종금

나는 4년 2개월간 몸담았던 1388청소년상담원을 그만두고, 상담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작년 초에 대학원에 진학했다. 비록 20대의 대학생은 아니지만 4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상담이란 같은 학문을 배우는 동기들을 만나 함께 격려하며 공부할 생각에 새 학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나 코로나란 복병으로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수업만 진행됐다. 학우들을 만나지 못했고, 학교는 입학하려고 면접 보기 위해 한번 밖에 들린 적 없어, 학생으로서의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엔 배움에 대한 부푼 기대감으로 맞이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학우들과의 연결 없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이어지다 보니 늦깎이 공부가 버겁게만 느껴졌다. 일주일의 딱 하루, 아침 9시 20분부터 저녁 8시 45분까지 4과목의 수업을 월요일에 몰아서 들었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수업 듣는 것이 허리에 무리가 되어 월요일이 두렵기까지 했다.

설상가상으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도 코로나로 2주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1주는 등교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묘하게 둘 다 집에 있거나 한 명씩 번갈아 가며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해서, 단 한 주도 집에 아이가 없는 날이 없었다. 늦깎이 학생이라면 으레 겪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은 당연히 받아들였으나 두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고자 했던 계획 자체가 코로나로 무산되어서 당황스러웠다.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월요일, 수업 중간 중간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 식사를 차려야하고, 설거지나 빨래, 청소와 같은 집안일을 미친 속도로 하고 나면 몸이 너무 피곤했다. 공부를 하다가도 아이가 밥

차려 달라고 하면 차려줘야 하고, 설거지, 빨래 돌리고 널고 개고 청소하기 등의 집 안일도 병행해야 하니 늦깎이 공부도 더욱 어렵기만 느껴졌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전액 학자금 대출로 공부를 하는 것이라 내가 괜히 배운다고 해서 가정 경제 부채만 늘린 것은 아닌지란 생각이 들어 공부에 집중하기 점점 힘들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에 집에 있는 달라진 일상, 코로나는 등교를 선별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 놓았고 여행도, 외출도 되도록 자제하라는 말만 되풀이 됐다. 외식도 5인 이상은 금지로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공기 중으로 전파되고 어느새 변종 코로나까지 발견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시대’라는 단어는 어느새 ‘위드 코로나시대’로 바뀌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따지고 보면 늦깎이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려던 내 계획만 틀어진 것은 아니다. 코로나로 힘든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도 고등학생이 되어 더 열심히 꿈을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에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하겠다며 새학기를 눈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나 2주 온라인 수업을 하고 1주 등교 수업 하는 것이 친구들 사귀기도 어색하고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 불편하다고 했다. 또한 마스크로 얼굴의 2/3를 가리고 있어, 아이들 얼굴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코로나를 툴하면 욕했다.

아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은 핸드폰을 하지 않고 집에 와서야 핸드폰을 했었는데, 등교를 하지 않는 온라인 수업인 2주간은 두 세 과목만 띄엄띄엄 수업을 진행하므로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나도 아들과 부딪힐 일이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 핸드폰을 하다 보니 아들도 지쳤는지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것이 재미없고 이전 지겹기까지 하란다. 그러나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재미없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란다. 심심해하는 아들에게 “드럼을 칠래? 기타를 배워볼까? 아니면 줄넘기를 할까? 목공예 교실이 있는데 같이 만들까? 살 빼고 싶어 하니 같이 만석공원 만보걷기 할까?”아들이 이

런 내 권유에도 나가기 싫다며 꿈쩍도 하지 않아 “좋아하는 음식(과자나 간식)을 사러 시장이나 마트 갈까?”말해도 싫다고 해 등교를 하지 않는 2주간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아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다. 안 그래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들인지라 신경이 쓰이는데, 등교를 안 하는 온라인 수업을 2주 연속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등교라는 시스템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해왔던 아들이, 코로나로 인해 등교를 어쩌다 하니 더욱 더 소극적으로 변해 외출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아 코로나가 더욱 알맴기만 하다.

코로나는 또한 시어머니 면회도 힘들게 만들었다. 치매로 2014년부터 화서역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안에서 면회할 수 없고, 요양원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잠시 얼굴만 보고 헤어져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시어머니를 비롯한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도 많이 외롭고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게다가 올해 2월 아주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을 때 코로나를 이유로 병원 면회도 되지 않아 환자를 만나지 못해 많이 황당하고 속상했다. 코로나 확진자는 이대로 죽어도 가족도 못 만나게 하니, 코로나가 짧은 기간에 사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음에 격세지감을 느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너무도 많이 바꿔 놓아 적응하는 과도기를 싫든 좋든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전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뉴스에 오르내리고, 5인 이상 외식도, 가족 단위 여행도, 밤늦게 유흥업소 이용도 금지되어 모두들 지키려고 애쓰는데, 안 지키는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뉴스 등을 접할 때면 다들 저마다 이전의 일상을 그리워하며 바뀐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구나가 느껴졌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가 아닌 위드 코로나시대로 생각을 전환해 바뀐 일상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의 건강과 자유가 소중하듯 남의 건강과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 지켜야 할 지침들은 잘 지켜내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한다. 이 과도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침을 잘 지키고 잘 적응해 확진자 수가 더는 증가하지 않으면 좋겠다. 위드 코로나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지구촌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빌며 파이팅!

코로나식(式) 팔순잔치

김주성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 놓았다. 일단 사람이 모임을 제한하니 각종 관혼상제의 예식 또한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었다. 돌잔치, 결혼식, 팔순잔치, 장례식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행사는 거의 비대면이나 인원수 제한 탓에 약식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나의 경우 부모님이 임오생(壬午生) 동갑이시라 올해 7월이 두 분 모두 팔순이 되셨다. 예전 같으면 팔순잔치를 성대하게 치뤘을텐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행사는 생략되고 가족모임 또한 5명 이하 모임 수밖에 없었다. 고민이 컸다.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쩔수 없이 정부시책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팔순을 치르자고 설득을 했다.

부모님은 매우 서운해 하셨다.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 약간의 지인들을 초청해 밥 한끼 대접하고 싶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좌절이 된 것이다. 자식은 자식대로 법규지침 선에서 팔순을 치려야 했기에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예를 들어 우리가 4형제인데 각기 따로 부모님을 모셔서 축하연 자리를 갖기로 한 것이다. 식당에선 한 테이블에 4명만 가능하니 부모님과 자식들 내외기간만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부모님은 총 4번에 걸쳐 자식들과 자리를 같이 해야 했다.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경우란 말인가? 예전 같으면 옥먹을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다. 오죽하면 부모님이 “우리가 복이 많아 상을 네 번이나 받는구나”라고 하시겠는가. 남들은 한번 받는 것도 힘든데 네 번이나 받으셨으니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코로나식 팔순잔치법이라 할까? 하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과 오버랩 되어 4번이나 상을 받았으니 참으로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아

마 두고두고 회자 될 것이다. 코로나가 효행의 방식도 뒤바꿔 놓았다고 말이다. 비단 팔순이 아니더라도 생신때라도 같은 경우라 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로부터 취약한 부모님을 보호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선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코로나로부터 탈출한다 해도 이전 예전방식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다. 한번 지나간 건 두 번 다시 되돌아 올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만 있을 뿐, 이전의 경험은 없다고 한다. ‘아! 옛날이여’라는 어떤 여가수의 노래가 생각난다. 코로나 이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생각이 절실하지만 돌아간들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두 번 다시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면 적어도 그 물에서 만큼은 계속 발을 담글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피서지에서 생긴 일...

김주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고 비수도권도 3단계로 격상되면서 여름휴가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그래도 발은 담궈야 한다는 생각에 24일 인천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을 다녀 왔는데 입구부터 살벌하다.

먼저 간단하게 체온검사를 한 후 QR코드로 인증한 다음에야 손목에 밴드를 채워준다.(QR코드가 없는 사람은 인적사항을 적는다.) 그 밴드를 찬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다. 입장료는 해수욕장마다 다르지만 이곳은 무료였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을 텐데 역시 코로나의 칼바람은 피할 길 없었나 보다. 드문드문 무리지어 물놀이하는 사람들 이외에 한산하기 이룰데 없었다. 한여름 작렬하는 태양아래 그것도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는 참으로 성가시기 이룰데 없다. 땀은 비오듯 흐르고 순간 짜증이 솟구쳤지만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애어른 할 것 없이 다들 착용하고 있었기에 벗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코 아래 까지 내렸다가 옆 사람에게 지적당한 기억도 있던 터라 용기 내어 벗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쓰고 물에 들어 갈순 없지 않은가? 찹찹하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생각했는데 옆을 보니 상황은 달랐다. 심지어 깊은 물속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처음엔 황당했는데 곧 상황판단을 한 후 마스크를 쓰고 물에 들어갔다. 바닷물이 마스크를 침범하고 찢밧에 축축해 졌지만 벗기에는 이미 마야일체(마스크와 내가 일체가 된 상태)가 된 상태라 오히려 착용 하는게 편했다. 물에서도 전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벗기도 애매모호해 그렇게 착용 후 물놀이 했다.

이쯤 되면 모범 마스크 착용상을 쥐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얼마전 국내

연구진들이 마스크에 관한 연구실험을 했는데 코의 점막에서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한다. 코까지 마스크로 가리면 훨씬 더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그 동안의 마스크 무용론을 일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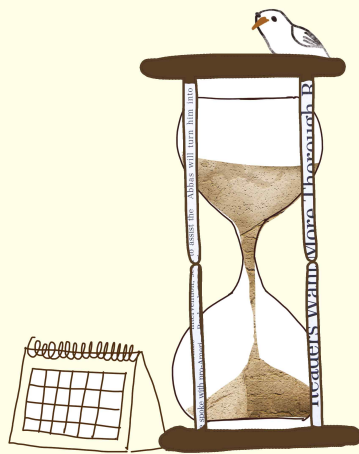
사실 마스크 착용으로 보면 보통 성가신 것이 아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조카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한 탓에 종일토록 두통을 호소한다. 얼마나 답답할까? 숨쉬기도 불편할텐데~ 기하 초인적이다. 어디서 들으니 마스크로 인해 나중에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다.

새삼 중국에 소행이 과심하게 느껴진다.

‘사람이 철면피를 쓰고 염치를 모르면 천하무적이 된다.’

중국 속담에 나오는 말이다. 누구 때문에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반성을 못할망정 오히려 큰소릴 치니 아연질색의 철면피라 해도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는데 말이다. 판도라의 상자 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상징물 중에 마스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마스크가 없는 외출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 또한 이루 말할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물렸거라. 우린 홈파티 한다

심춘자

“우리 홈파티해요 준비는 제가 할게요.” 큰아이가 보름 전에 한 말이었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파티 참석 준비물이 뭐가요?”라고 가족 대화방에 올렸더니 “별도의 준비물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큰아이가 회사 근처에서 코다리낙지조림을 사 왔다.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았다. “우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냐? 너, 이 집 단골이야? 문어가 3마리나 되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자 씨익 웃고 만다.

“내일까지 먹어도 다 못 먹겠는걸.”이라고 말하자 “먹어보면 또 안 그래요 양념이 자극적이니까 소면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도 조금 굽죠?”라고 한 술 더 떴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는 동안 식구들과 밥 먹는 일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남편과 큰아이는 직장에서 아침저녁을 다 먹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번 같이 밥 먹기도 어려웠다.

남편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면서 가끔 마시던 막걸리도 자연스럽게 금주를 하게 되었다. 막걸리 한 잔 마시는 즐거움을 잃었다. 한 달이면 몇 번이고 맛집을 찾아 외식하던 것도 없어졌다. 오로지 집밥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었다.

더불어 전업주부인 나는 시장에 자주 가게 되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을 집 근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식재료를 샀다. 파 대란이 있을 때도 부지런히 채소를 사다 날랐고 생선은 도매점포에서 상자째 샀다. 신선한 것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함이었다. 깨끗하게 씻고 다듬어서 작은 통에 한 끼 먹을 분량으로 나눠 담았다. 통에는 견출지에 이름과 날짜를 적어 통을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했다. 냉동실

가득 채워지면 곡간에 쌀 들어오는 날 농부처럼 마음이 좋았다.

고등어 다섯 손, 갈치 다섯 마리, 낙지 2kg까지 사면 일주일 정도 먹을 양이 되었다. 무엇이든 잘 먹는 아들 두 명에 남편까지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는 양도 식비의 거의 반을 차지했다.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그대로였다. 그래도 먹는 것을 줄일 수는 없었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찾아야만 했다.

부지런히 냉장고를 채웠지만 그야말로 돌아서면 재료들이 동이났다. 메뉴를 고민하고 밥하는 일로 하루를 보냈지만 시간은 빨리 흘렀고 금방 저녁이 왔다. 식구들 귀가 시간에 맞춰 종종 해물찜이나 돼지고기 수육을 메인 요리를 식탁에 올리면 식구들은 “오늘은 잔치상이네요”라며 흡족해했다.

직장에서 점심 한 끼를 먹고 퇴근할 때까지 얼마나 ‘배가 고플까’라고 생각하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남편은 “맛있는 밥을 해줘서 고마워.”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도리어 그 말이 고마워서 더 많이 할 수 없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식구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식탁에 막걸리도 올라오고 마음이 풍성해졌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막걸리잔을 돌리고 웃으면서 큰아이에게 “건배사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다. 큰아이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제가 ‘힘이 센 육식공룡 티라노’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사우루스’라고 외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모두 큰 소리로 대답했다.

“힘이 센 육식공룡 티라노~” 큰아이의 선창에 모두 “사우루스”를 외치고 잔을 부딪쳤다. 이 상황에 공룡이 왜 등장했는지 알 수 없다. 모르면 어쩐가. 즐거우면 그 뿐이었다.

남편은 작은 아이에게도 건배사 제의를 했다. 작은 아이는 “알겠습니다. 저도 멋진 건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힘이 센 초식공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트리케라톱스’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라는 말에 다시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은 아이는 “힘이 센 초식공룡”이라고 선창했고 우리는 “트리케라톱스”라고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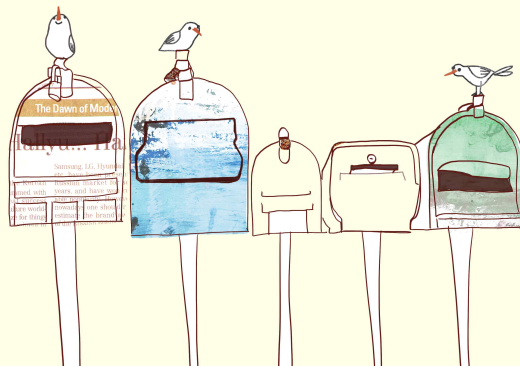
오늘 홈파티 주인공은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인 것 같았지만 상관할 바는 아니었다. 전업주부인 엄마가 밥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쯤 씬을

선물하는 식구들의 배려가 고마웠다. 식사 시간은 즐겁고 유쾌했다.

남편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홈 파티를 기획하고 준비한 우리 식구들 정말 고마워.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갖기로 하자.”라고 말했다.

친구나 지인들에게 만나자고 먼저 제의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나날이었다. 10년 가까이 취미 생활을 함께 하던 회원들과 왕래도 끊어졌다. 얼굴을 보지 못하니 마음도 멀어졌을까? 자신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는 것 같다.

사적으로 외출하는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반면 열심히 하는 시장은 일 뿐이다. 코로나 시대 주부로 엄마로 식구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은 맛있는 밥을 먹이는 일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여성시대

오경미

“엄마! 엄마! 엄마!”

“왜~?”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예요?”

인제야 아침 설거지 마쳤는데 우리 막내는 물어본다. 마음이 답답해진다.

나에게 식모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집안일에 시간을 내어주어도 그 시간은 끝날 줄을 모른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생각하고 뒤적이다가 생각해 낸 메뉴는 볶음밥! 조금씩 밀봉해둔 채소들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하나씩 꺼내어서 각각 손질하고 다지고 특성에 맞게 순서대로 볶은 후 밥을 넣고 약간에 간을 해서 마지막까지 잘 비벼서 볶았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서야 볶음밥과의 동행을 마칠 수 있었다

상을 차려주고 땀을 닦기도 전에 벌써 순식간에 먹어버린 우리 아이들 정말 감사하게 잘도 먹는다. 난 설거지를 놔둔 채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보았다. 눈에 번쩍번쩍 채널 불빛이 어지러운 내 머릿속을 밝혀냈다. 그러다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잔듯한데 30분도 안 되었다. 귀 밖으로 수돗물 소리에 그릇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억지로 눈을 떴다. 조금만 더 자게 해주지 허공에 대고 혼자 중얼거렸다. 몸을 일으켜 세우고 물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슬금슬금 누구에게 들킬라... 어제 좁은 집에서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할 때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며 그때처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재밌었나 생각하며 웃으면서 걸어갔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다. 내 눈을 의심했다. 그 모습에 순간 난 얼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큰딸은 설거지하는 듯 싱크대 앞에서 물에 씻은 그릇을 털어 선반 위에 걸쳐두고,

막내딸은 식탁을 정리하는 듯 물티슈로 고사리손으로 이리저리 닦아 대고 있었다.

“너희들 뭐하니?”

”설거지하고 치우고 있었어요!“

“어쩜 그런 생각을 했니?”

”언니가 엄마가 힘들신 것 같다고 치우자고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이 내 새끼란 말인가? 난 힘들다고 투덜대면서 점심상을 챙겨주었는데 마음씨 고운 착한 우리 딸들은 나를 생각해 주고 있었다는... 부끄러운 맘이 들을까 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힘껏 아이들을 껴안아 주면서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라고 귓가에 대고 말해주었다. 정말 감사했다. 그동안에 힘든 것이 싹 사라져버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옹지! 텃밭 농장에 가면 좋겠다.

”애들아, 농장 갈래?“

”야호! 네! 갈래요, 갈래요“

밭에 가려고 호미와 면장갑과 비닐봉지와 라면상자를 준비하고 아이들은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고 긴 팔과 긴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나서야 출발했다. 평소와 달리 차에 타자마자 안전띠를 매는 우리 아이들 오늘 예쁜 행동만 하는구나 싶다. 골목에서 도로로 접어들자 차들은 빨리 가려는 차와 3050 캠페인을 지키려는 차들이 이리저리 엉켜있어 나조차 정신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늘 찬송가를 즐겨듣는 습관이 있다 보니 큰아이에게 찬송가를 틀어달라고 부탁해서 들으며 차분히 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이라서 다행인 것 같다. 30분을 달려서야 도착한 농장에 주차하고 우리 텃밭 구역으로 걸어갔다.

벌써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다른 농부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일하시니 더욱더 우린 착한 마스크를 써야만 했다. 땀이 등줄기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풀들은 상추와 키가 같아져 있고, 감자는 어제 내린 비로 앞이 옆으로 누워 있었다. 고추밭에 풀들도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시작하기도 전에 한숨이 먼저 나온다. 아이들을 벌써 신이 나서 이리저리 놀이터인양 놀고 있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여기 온 이유로 충분하다.

감자부터 시작이다. 감자에 잎을 들어 올리니 주렁주렁 달린 감자들이 보였다. 모두 환호성을 냈다. 감자잎을 먼저 들어 올려 땅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하고 나서

야 땅을 헤집어 땅속에 감자들을 골라내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호미를 가지고 살살 흙을 파서 감자 찾기를 했다. 아이들이 캐고 간 자리부터 나머지 땅속에 있을 감자를 마저 캐면서 나는 나아갔다. 얼마 되지 않아 엄마 그만할래요 하면서 아이들은 공터로 가 버렸다. 나도 아이들을 따라나섰다. 사실 나도 쉬고 싶었던 것 같다.

아이들은 땅을 파서 큰 돌을 꺼내어서 하나씩 탑을 쌓기 시작했다. 아이들 이름을 붙여서 빌딩을 세울 거라고 했다. 재밌는 아이디어에 나도 옆에서 땅속에 묻혀있을 보물 돌들을 한 개씩 찾아 주었다. 이게 뭐라고 재밌었다. 아이들이 '나는 문제 없어' 노래를 흥얼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노랫말이 왜 이리 와 닿는지 나도 함께 따라 불러 보았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좋은 부모로 만들어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보았다. 아이들에게서 뭔가를 크게 배우고 나서 난 다시 감자 녀석한테로 갔다.

알알이 감자 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크기도 다양했다. 젖은 감자를 땅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말리기로 하고 상추로 갔다. 상추의 큰 잎 때문에 햇빛도 못 보는데 그 틈에서 자란 풀들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할까? 자란 풀을 뽑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풀들을 제거하면서 예쁘게 꽃을 피운 상추를 한 개씩 떼어내었다. 상추가 얼마나 얇고 부드러운지 살짝만 대어도 찢어지는데 아기 다루듯 살살... 모든 일에 정성과 땀이 필요하구나 싶었다. 흐르는 땀이 부듯해지고 열심히 하는 나 자신이 기특했다.

땀을 좀 식힐 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갔다. 벌써 빌딩 5층을 짓고 있었다.

”엄마, 엄마! 돌 좀 더 찾아 주세요.“

”그래, 어떤 돌을 찾아 줄까?“

”너무 작지 않은 것이면 좋겠어요.“

나는 열심히 호미로 돌을 찾아보았더니 작은 것만 남아있었다. 다리 큰 한 걸음을 지나서 호미질하니 몇 개의 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니 흙가루가 땀범벅인 내 몸 위에 살포시 얹혀 있었다. 어떻게 쉬러 왔는데 일거리만 더 생기니 말이다.

난 다시 캐다 남은 감사한테로 갔다.

내가 처음 보자마자 환호하던 감자도 계속 보니 신비감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쪼그리고 앉아있으니 땀도 땀이지만 다리가 저렸다. 그나마 늦은 오후에 와서 시원한 바람을 서비스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땀에 젖은 마스크를 새로 바꿔 쓰고 나서 이젠 감자를 상자에 담으려 한다. 아이들을 소리쳐 불러 모으고 작은 것과 큰 것을 나누어 상자에 담도록 이야기를 해주었다. 두 상자가 다 채워졌다. 나머지 한 상자에는 상추를 담았었다.

이젠 집으로 가야 한다.

아 참, 이곳에 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입구 쪽에 있는 봉어빵을 사 먹는 것이다. 사장님이 통이 크셔서 봉어 전체에 팔을 다 빼곡히 넣어주시니 그 맛이 일품이다. 슈크림 봉어빵에 슈크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달콤한 슈크림에 힘든 농장 일이 살살 녹아내린다. 서비스로 주시는 어묵 국물에 두 번 감탄하게 된다.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3050 속도로 안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 무렵 해가 지는 그것을 뒤로하고 달리는 차 안으로 부는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상쾌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감자를 신문으로 덮어두고 10개 정도를 물로 씻어서 3개는 감자볶음을 하고 7개는 굵은 소금을 조금 넣고 삶아 채소와 감자샐러드를 만들었다. 오늘 저녁은 감자파티다. 어제 해놓은 오이미역냉국도 저녁상에 올랐다. 오늘 하루에 식사 준비는 억지로 하는 준비과정이 아닌 자녀에게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땅에 기운을 받고 키우고 재배한 감자로 인한 건강해진 식탁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으므로 삼시세끼 집밥과 간식을 하시는 모든 조부모님, 부모님들 생각이 달라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지금 하는 수고는 우리 가족들이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야 이 코로나를 더 쉽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라 힘들다고? 마음은 지키자!

이주영(수원시 장안구, 통역프리랜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매달 머릿속으로 되뇌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이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한 해를 넘기고 또 두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우리 곁에 COVID19을 독감처럼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COVID19가 오자마자 통역과 비즈니스 여행 가이드를 하는 나에게는 직격탄이 떨어졌다.

내가 통역해 왔던 상대국이 개발도상국이었기에 그 나라는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이동과 교류가 몇 달 동안 뚝 끊기고 말았다.

어디다가 하소연하기도 무엇하고, 당장은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했다.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즈음, 이 업종 안에서 다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친구로부터 듣고 국민배움카드 신청을 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일은 할 수 없었지만, 매일 함께 수강하는 친구들이 생겨 간식도 나누며 열심히 공부하던 중, 학원도 모임 금지되는 상황이 되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던 친구들과 줌미팅으로 만나 수업을 이어나갔다.

웬지 점점 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세상과 분리해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게 만들었다. 멘탈을 지켜야 한다!! 이또한 지나가리라!!를 속으로 외치며 줌미팅에 보이는 얼굴은 활짝 웃으려 노력했다.

시간과 싸우기 위해 더 집중했고 1차와 2차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렇게 연말을 바쁘게 보내는데 성공하고 2021년을 맞이했다.

그럼 뭐하나?... 여전히 백수느낌인데??... 하하하

친구는 지치지 않고 다른 자격증을 신청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일하느라 하지 못했던 운동과 취미 공방을 시작했다.
또 온라인으로 재개된 몇몇 비즈니스 상담통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일은 이어지
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 들어오고 있다. 아직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다.
비움은 채움의 감사를 다시 느끼게 한다.

작년에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가 올해는 그래도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었
지만, 생활은 큰 아이때와는 사뭇 달랐다. 서로 모임금지, 로비에서 대화금지, 아이
의 말로는 그저 각자 방에서 줌미팅으로 수업듣고, 칸막이 친 식당에서 말없이 밥
을 먹고, 방에 들어가 다시 혼자.. 좀비영화가 떠오르는 장면이다.

집에 와서는 줌미팅을 열어놓고 맥주캔을 노트북 화면에 부딪히며 친구들과 수다
를 떠는 작은아이의 모습을 보며, 코로나 상황에 나름 즐겁게 헤쳐나가는 것 같은
생각 한 켠에 안쓰러움도 따라온다. 아이는 아이대로 마음을 지키고, 나는 나대로
길을 찾아 가는 중이다.

작년에는 매 순간 불안함을 참기 위해 애썼던 것 같다.

해외근무하고 있는 가족이 한국에 방문을 못하고 떨어져 있게 되는 이 상황또한
나를 힘들게 했었는데, 올해는 적응이 된건지 극복이 된건지 알 수 없으나 마음만
큼은 평안하려 한다.

친구들과 여럿이 만나 술자리와 수다를 떠는 사소한 일상이 가장 그림다.
손을 잡고, 등을 토닥겨주던 그 별것아닌 스킨십들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다.

당연히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접고 나니 모든 일들이 소중한 감

시하다.

그리고, 방역만큼은 전 세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통행이 자유로운 상황이여서
다행이다.

불어오는 바람이면 다시 날라가지 않겠나?

무섭게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나는 다시 돌아올 나의 시간을 잊지 않았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평범하게 일하던 그 위대한 일상을 위해 다시 마음을 잡고,

서로 믿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말이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아파도 꽃은 피어납니다

전신실

첫손이 다니는 학교 가는 길목에 벚꽃길이 있다.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벚꽃터널이라 벚꽃이 피면 너도나도 산책을 서두른다. 오늘도 마스크를 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산책도 하고 사진을 찍으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나도 햇빛에 하얗게 반짝이는 벚꽃길을 걸으며 첫째를 맞으러 학교로 가는 중이다. 작년에는 유난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그 예쁜 자태에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기억이 난다.

바이러스‘코로나19’로 공포에 떨던 작년 봄 벚꽃은 흐드러지게 아름답게 피어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아 오래오래 머물렀던 기억이...

나는 세손녀의 할머니다.

올해 초2가 된 첫째가 태어날 때부터 맞벌이 딸내미 부부를 도와 육아를 돕기 시작한 때가 엇그제 같은데 둘째 셋째가 태어나고 나의 시간도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 듯하다.

선물 같은 어여쁜 세손녀가 태어나고 꼬물꼬물 자라고... 아이들이 유치원에도 가고 어린이집에도 가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시간도 생겨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60대를 훌쩍 넘어 있는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자신 만만하던 나의 50대는 가고 이제 ‘할머니’로 불리는 나이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서, 나에게도 시간을 투자하려고 전부터 해오던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마음먹고 시작할 즈음 느닷없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첫손녀가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생애 첫 입학식을 앞둔 작년 초에 소리 없이 다가온 ‘코로나19’의 기습!!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바이러스의 공격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모두 문을 닫고 아이들은 칩거시작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의 모든 시간은 다시 아이들과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첫손은 유치원 졸업식도 초등학교 입학식도 하지 못한 채 집에만 머무는 날이 시작되었다.

혼란속의 펜데믹 가운데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애써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한 해를 송두리째 바이러스에 주어 버린 듯 나에게 2020년은 없는 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세손녀들과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며 하루하루 가슴 조이던 시간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확진자수를 확인하며 빨리 진정되기를 기도했던 나날들, 딸네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나왔다고 아파트 내 벤치, 테이블을 테이프로 묶어놓고 놀이터마저 테이핑 해 놓아 더 가까이 다가온 바이러스에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들. 아기새 같은 세아이를 보호하기 급급해 다른 어느 것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나날들. 연로하신 친정어머니 찾아뵙는 것도 조심스러워 명절에도 가지 못하고.. 친정어머니 구순 모임마저 취소할 수밖에 없어서 불효한 우리 삼남매의 마음에 상처로 남은 2020년.

특히 첫손녀가 초등학생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등교금지가 되어 일학년 내내 등교한 날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니... 유치원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아이도 인지가 어려웠으리라...

뉴스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의 문제점(사회성 결여, 학습 부진 등)을 연일 다루고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었지만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이란 EBS로 수업대체해 주고 언택트 수업하는 어린 손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어서 빨리 정상 등교하는 날이 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생활 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두 살 두 살 터울인 세손녀랑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시 내려 놓을 수밖에 없었던 한해를 돌아본다. 아침마다 마스크 챙겨 쓰고 딸네 집으로 향하며 작은 위안을 받았던 그 벚꽃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아파도 꽃은 피어납니다.’

재잘재잘~ 문득 정신 차려 보니 학교 앞.

교문 앞에서 손녀를 기다리는데 해맑은 표정의 아이들이 나비처럼 팔랑팔랑 뛰어

나온다.

‘거인의 겨울정원’같은 학교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꽃이 활짝 피어난 봄의 정원이 된 것 같다.

‘코로나19’로 얼어버린 우리의 삶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꽃이 활짝 피어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할머니~” 반갑게 달려오는 아이를 품에 껴안고 “재미있게 지냈니?”라고 물으니 그 큰 눈에 웃음을 담뿍 담고 “학교 좋아요 재미있어요.” 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소개한다. 올해부터 정상등교를 하면서 2학년 생활을 시작한지 한달이 훌쩍 넘어 제법 학생티를 보이는 아이의 모습에 잠시 ‘코로나19’는 잊고 일상을 되찾은 듯 흐뭇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 참으로 정겹다. 지금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언제 감염될지도 모르는 공포감을 주지만, 각자의 생활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으니... 희망이 보인다.

이제 두시간 후면 둘째 셋째의 유치원 하원시간이.

작년 한해 잦은 유치원 등원 금지로 제대로 유치원 생활도 못했던 아기들이 올해는 즐겁게 매일 등원하며 자기생활을 찾아가고 있으니 다행이다. 잠시의 외출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고사리 손으로 귀에 거는 5살 막둥이를 보며 기특한 한편 미안해지고 거리두기 해야 한다며 두팔 벌려 공간을 만드는 FM둘째의 모습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씩씩해 하던 시간들도 다 추억이 되리라. ‘코로나19’에 적응해 나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본다. 이렇게 세손녀들이 자기자리를 찾아가듯 나 또한 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친정엄마와 손잡고 산책이라도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백팩 둘러메고 책 한권 들고 기차에 올라 짧은 여행이라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잠시 미뤄두었던 나의 취미생활로 활기있는 60대를 보내기를...

마스크 벗고 맘껏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며 바쁘고 지친 하루이지만 오늘 세손녀를 데리고 벚꽃따라 산책을 해보기로 한다. 예쁘게 핀 벚꽃이 나에게 위안이 되었듯이 우리 세손녀에게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바뀌는 나의 삶

전진숙

나이가 들면서 욕심을 많이 내려놓으니 조금 더 행복해 지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유일하게 좋은 점 하나인 것 같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욕심을 내는 것도 있다.

바로 여행이다. 장시간이건 단 시간이건 여행을 다녀오면 더 허기가 지는 것 같은 기분이다.

작년 초 모처럼만에 시간을 낸 딸과 여행을 계획했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던 중 바로셀로나 비행기티켓이 엄청나게 싼 게 나왔다. 몇 년 전 딸의 스페인 교환학생이 끝 날 무렵 가족여행으로 다녀오긴 했어도 넓디넓은 스페인을 여행하긴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이었다.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던 터라 주저 없이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코로나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행복하게 여행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매일 갈 수 있는 지? 현지 상황은 어떤지? 검색에 검색 점점 더 악화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상황, 눈물을 머금고 좀 진정되면 가는 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예약을 취소했다. 세상사는 낙이 없어졌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가기 전 그 선택이 얼마나 잘했는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어렵게 적금까지 들어 떠난 어느 노부부의 고생스런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그 때 까지만 해도 잠시 이시간만 지나면 다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난 올 해도 상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수그러질 기미가 안 보인다. 더욱더 강력해진 놈이 인간을 공격 하고 있다. 언제쯤이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날이 내 생전에 다시 오기는 하는 걸까?

중간 중간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 이제 여행을 못 가면서 스트레스는 쌓여 가고 그 와중에 사회생활이 많이 어려워져 왕성한 사회생활을 해야 할 가족들은 집으로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찍 귀가하는 가족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식구들의 뒤치닥거리가 너무 버거워졌다. 가족회의를 해서 일을 분담하기로도 해봤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어서 쉽지가 않았다. 내 또래의 행복은 저녁 먹고 일찍 오는 남편이 만점 남편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오늘 메뉴 뭐예요’ 하면서 기대를 하는 아들녀석이 이젠 반갑지만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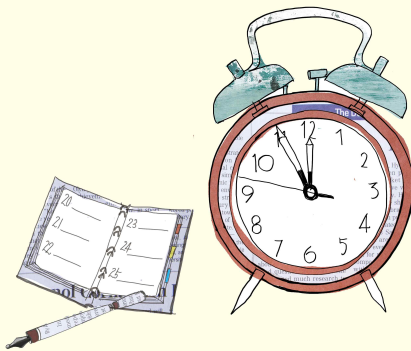
난 언제쯤 이 부엌을 탈출할 수 있을까?

매일 뉴스를 보면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볼 때면 나의 투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한심한 건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보면서 난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지만 그때뿐 지금 내가 힘드니 어찌겠는가.

코로나 시대라고 좀 달라져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는 것 누구의 문제도 아닌 내 문제인 것이다.

어느 날 문득 우리 앞에 온 ‘코로나19’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오늘도 난 오늘 저녁 메뉴는 뭘로 할까 고민하면서 퇴근을 서두른다.—



사람이 너무 그리운 시간입니다.

한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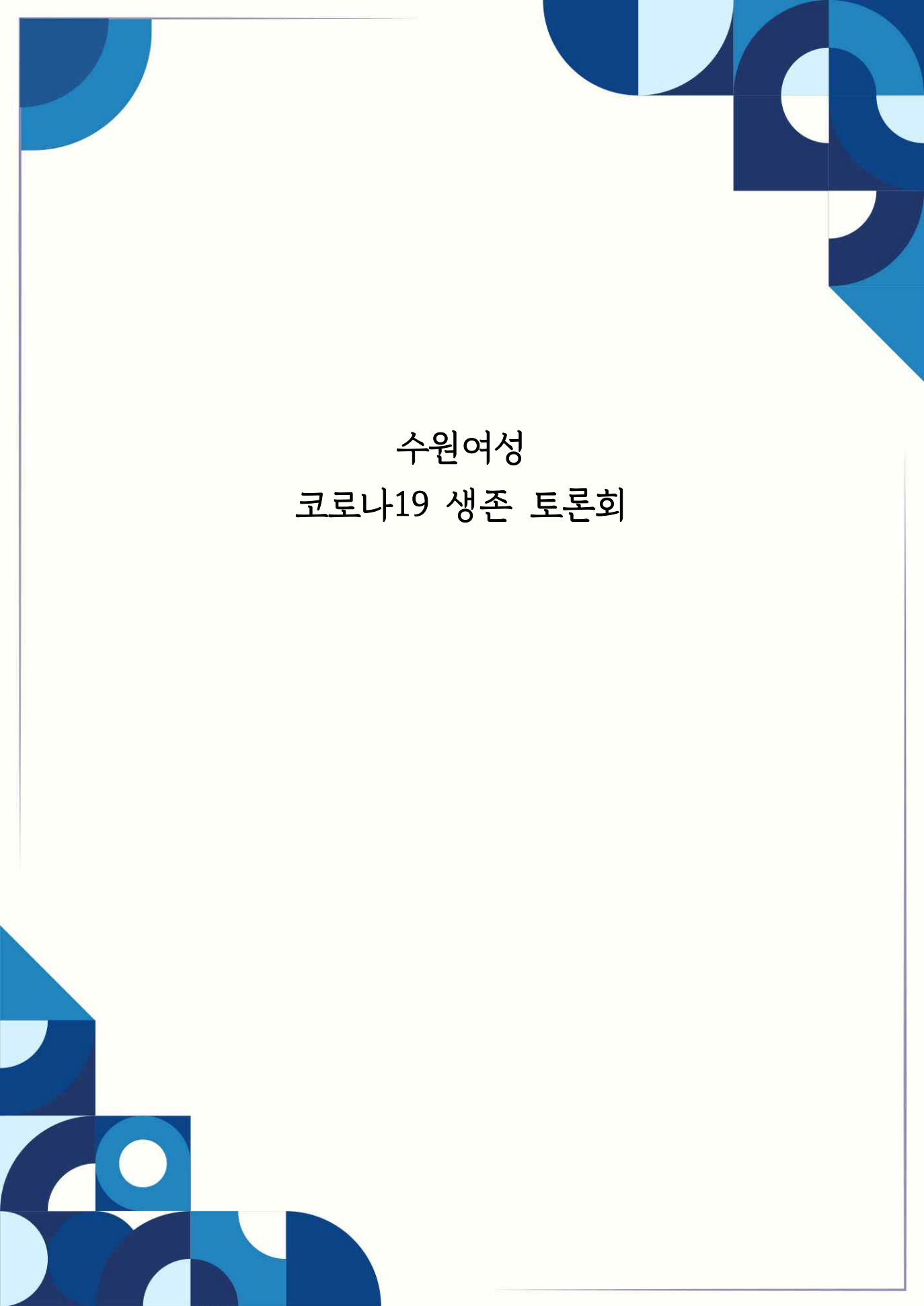
저는 87세 할머니입니다. 몇 년 전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지금은 혼자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아들이 근처에 살고 있어 간간이 반찬거리나 과일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가끔은 함께 외식을 하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달이면 4~5번 절에 불경공부 모임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점심도 함께하기도 하고 광고저수지 둘레길 걷기도 1주일에 한번씩 했습니다. 손녀와 손주도 가끔 들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녁때는 혼자 공원 산책을 하기도 하고 남문 시장이나 지동 시장에 들려 장도보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중지되었습니다. 내가 고령자이다 보니 아들은 밖을 일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들도 집에 안 오려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균을 묻혀 올까봐 과일이나 찬거리를 사서는 현관 앞에 놓고 초인종만 누르고 갑니다. 나는 티비보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갑니다. 밖을 내다보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는게 전부지요. 조카딸은 전화로 기만히 있지 말고 거실을 걷기라도 하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 안됩니다. 날씨가 좀 나아진 이후는 저녁 시간 사람들이 안보일 때나 이른 아침 사람들이 없을 때 공원을 가서 걷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모습이 보이면 걱정이 됩니다. 마스크를 꼭꼭 눌러쓰고 장갑끼고 운동을 하고는 집에 들어오면서 아파트 문에 달려있는 소독약으로 손을 깨끗이 소독하고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 입습니다. 사실 병에 걸려 죽는다고 해도 크게 서러울 나이는 아니지만 자식들 걱정시키고 맘 아프게하는게 두렵습니다. 코로나로 세상 뜬 친구는 없지만 다른 병으로 세상을 뜬 친구가 있었지만 문

상을 못가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미안 하기도 하구요. 함께 절에 다니며 밥도 먹으러 다니고 속 이야기도 해온 사이였지만 오지말라고 하고 가면 안된다고 해서 안갔습니다. 머지않은 날 만나서 그 간 사정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지난 설에는 4인 이하만 모이라는 정부 정책 때문에 며느리가 차례상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아들손자만 와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손녀딸이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회사 방침을 꼭 지켜야한다고 해서 아들네 3식구만 먼저 아침 먹고 세배를 한 후 할아버지 산소에 가고 나중에 손녀가 다시 와서 아침을 먹고 갔습니다. 무슨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90년 가까이 살았지만 처음있는 일입니다. 혼자 살았지만 그래도 친구도 만나고 미용실도 가고 돌아다녀 그렇게 사람이 그리운지 몰랐는데 코로나가 오고부터는 하루하루 정말 지루하고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코로나는 와서 이렇게 모두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를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 안됐다는 생각이 들고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물론 늙은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주로 늙은 사람한테 더 독하다고 하니 늙은이 들이 더 죽었을 겁니다. 모두 불쌍하지요. 저는 어려서 학질을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열이 나고 아프고 그 다음날은 괜찮고 그렇게 고생한적이 있지만 병원 다녀오고 얼마 지나면 나아지던데 무슨 이런 병이 다 있답니까? 벌써 1년반 이상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또 새로운 병균이 나온다니... 도대체 언제 끝난단 말입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조카딸에게 불러주고 글을 쓰라고 해서 이 글을 쓰고 제출합니다. 나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르고 손으로 글을 써야하는데 어려워 전화로 불러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서어서 코로나가 물러나고 과거처럼 만나고 즐겁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는 공무원 의료진 참고 견디는 모든 사람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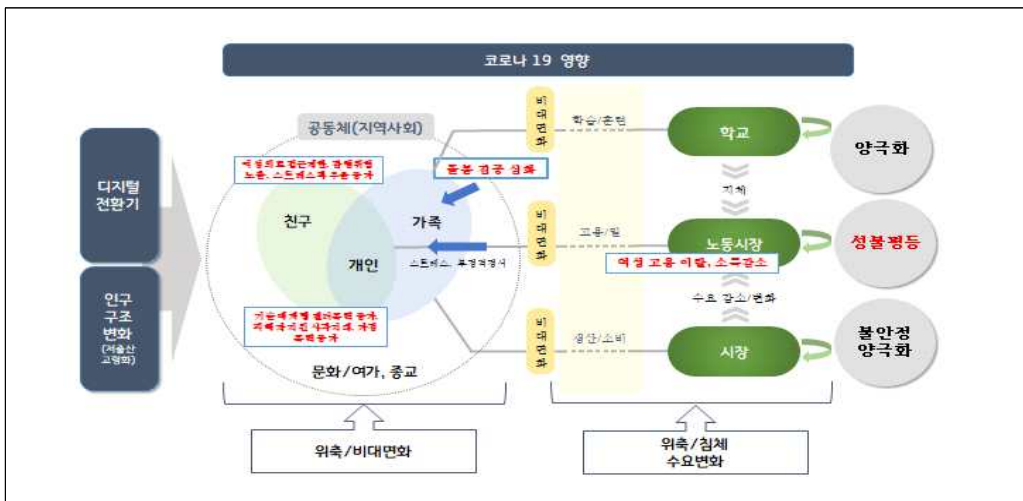
수원여성
코로나19 생존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

정혜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1 정책 환경

- 포스트 코로나시대, 성평등 정책 환경 진단은 1) 코로나 19의 영향 2) 성평등 정책 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인 디지털 전환기, 인구구조변화(저출산 고령화)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아울러 3) 젠더정책의 정치지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정혜원 외(2020)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의 변화와 미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코로나 19의 영향 : 위기는 성차별을 심화시킨다

○ 코로나가 젠더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OECD(2020), UN(2020), UN women(2020)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음(장미혜, 2021)¹⁾. 코로나19를 통해 성별 불평등의 문제와 필수노동력 인정, 돌봄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남.

(기존의 성불평등 + 코로나19 위험 → 새로운 기획의 필요↑)

※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모델(김현미, 2021)

구분	성불평등 이슈	기본성불평등위기+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	코로나 19이후 현재 상황
노동	고용이탈, 소득감소	노동시장내 여성의 낮은 지위+대면기반활동의 중단·축소	- 경기침체로 인한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실직 및 소득감소의 심화
건강	의료접근제한 감염위험에 의 노출 스트레스와 우울 증가	성재생산건강권에 대한 인식 미흡+의료접근 제한 및 안전체계 미구축	- 전염병 대응 중심의 의료 지원으로 일상적인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 여성직종인 보건·돌봄 종사자의 전염병 감염 위험 증가와 안전체계 미구축 - 스트레스, 우울과 불안, 자살의 증가

1) 장미혜(2021), 코로나19가 바꾼 한국사회 성평등지형: 위기와 기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8주년 기념 세미나.

돌봄	돌봄 집중 심화, 사회적 돌봄 공백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여성편중과 가치절하 + 공적 돌봄 중단·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돌봄 증가) 학교, 육아 시설, 노인/장애인 돌봄 시설 등의 폐쇄로 가정내 여성에게 돌봄 부담 증가 - (가정 내 돌봄 증가) 전염병 확산으로 가족 건강 관리 부담 증가 - (가정 밖 돌봄 증가) 가정밖에서도 여성의 돌봄노동 증가(필수 노동자의 대부분이 돌봄 노동자이자 여성 노동자)
젠더 폭력	가정 폭력 증가 디지털 성범죄 증가 대응을 위한 피해자지원 체계 부재	성별위계와 폭력+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가족간 밀집도 증대 및 온라인 사용량 증가, 피해자 지원체계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가정폭력 증가 - 가정 내 격리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거리두기 실패, 피해지원 센터 접근 제한 등 - 학교 폐쇄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량 증가 및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증가

- 코로나19로 노동, 건강, 돌봄 등 주요 영역의 성 불평등 이슈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지속반복될 가능성이 큼. 이에 국제기구들은 팬더믹 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성인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 성별분리데이터 구축 2) 여성의 참여 확대 3) **교차성 고려**를 제안함(장은하·김희, 2020).³⁾

■ 디지털 전환기 : 디지털 성별 격차, 여성노동의 변화, 젠더폭력의

- 2) 교차성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과 차별을 지속시키는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과 권력구조를 밝혀주기 때문이며,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인자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임.
- 3) 장은하·김희(2020) 코로나19와 성 불평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브리프.

변화 등 새로운 변화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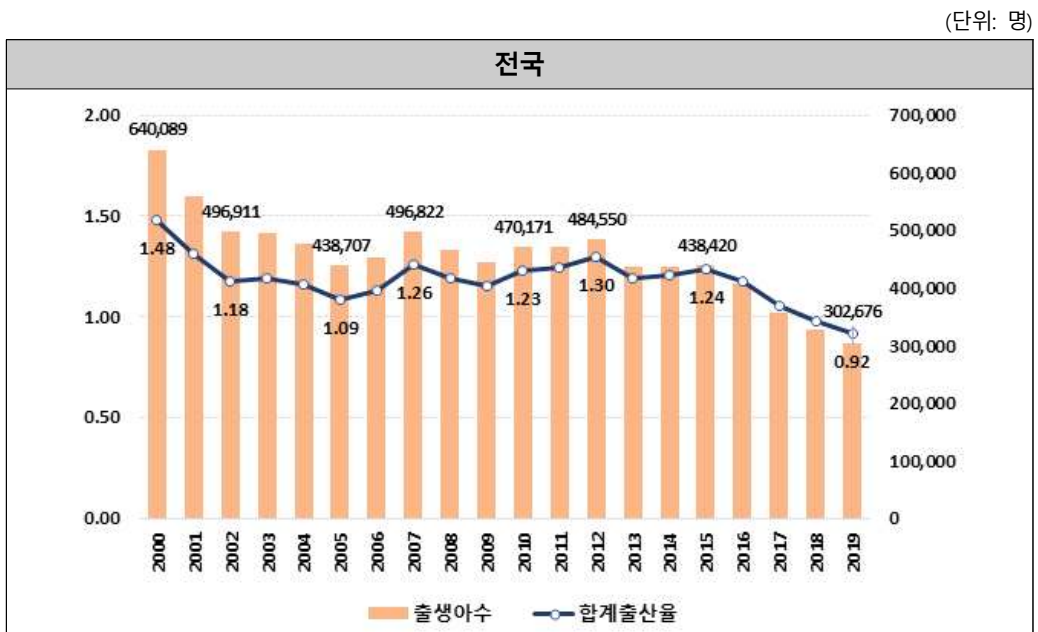
-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변화는 전 산업에 걸쳐 일어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체에 다양한 형식으로 적용되는 디지털화는 이미 교육, 노동, 경제, 국방 등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화의 가속화에 따른 일상에서의 성별 격차 심화를 예고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권리의식의 상승은 참여와 거버넌스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디지털 성별 격차] 디지털 기술 변동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남녀간의 디지털 성별 격차는 접근성, 기술창출, 리더십의 측면에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강이수, 2018)⁴⁾. 현재 기술 사회에서 기술에 개입하지 않고는 젠더 관계를 변형시킬 수 없음.
- [여성노동의 변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개별 산업별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미래여성고용의 양과 질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젠더폭력의 변화]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형태 및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시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폭력이 증가함.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폭력은 기존의 젠더폭력유형들의 변이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이에 기존의 전통적인 '젠더폭력 유형'중심의 분절적 접근으로는 젠더폭력방지 및 예방, 피해자 자립 및 지원, 처벌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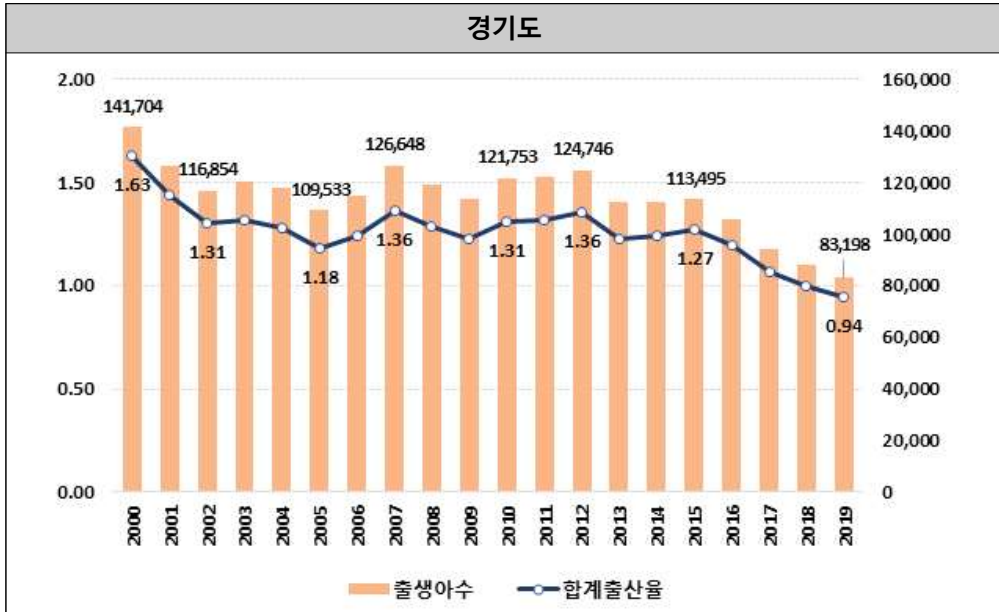
4) 강이수(2018)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성별 격차: 여성노동의 쟁점과 현실, 페미니즘 연구 18(1), 143-179.

■ 인구구조 변화(저출생 고령화): 젠더정치와 분배정치의 결합, 정상 가족의 해체와 가족의 다양화

- 2020년부터 초 저출산 현상(합계출생율 1.3명 이하)이 현재까지 지속, 2020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이 시작됨(2020년 합계출생율 0.84명).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가 감소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별 인구격차 심화로 지역 소멸 우려 및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인구변화는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 부담 심화', '사회영역별 수급 불균형'세대간. 지역간 격차와 불확실성 심화등의 문제를 발생시킴.

<그림 10> 전국 및 경기도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자료: 통계청(2000-2019), 「인구동향조사」

- [세대간·지역 갈등과 불평등의 심화]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 심화, 세대간 사회경제적 자본 배분에 대한 형평성 이슈 및 갈등 심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변화의 결합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⁵⁾의 해결 방안으로 젠더정치와 분배정치의 결합이 필요함. 특히, 중산층의 감소와 소득양극화로 인한 공생,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보편적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이전에는 4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0.2%를 기록함. 점차 1,2인 가구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 [정상가족의 해체와 가족의 다양화] 가족을 혼인·혈연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5) 4차 산업혁명은 인구구조와 결합하여 영역별로 불균등한 영향과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의 요인을 작용함

법률적 개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됨.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법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는 매개요인이 되었으며, 개인의 권리로서 가족을 논의하고 구성하는 권리를 제기하고 있음. 아울러 독립적이고 동등한 시민권을 갖는 **개인**이 중요해졌지만, 아직까지 가족은 성역할 규범과 젠더의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미시적 생활단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생활세계(민간영역)**까지 변화하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됨⁶⁾.

■ 젠더정책의 정치지형 : 가부장제의 균열과 견고화 공존

-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반감과 균열이 세대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성평등정책이라는 정책용어로 인해 젠더의 의미가 탈각되고 생물학적 성차로 등치시키며 기존정책의 성별 불균형만을 조정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
- '남성 역차별론'과 '온정적 성차별주의'⁷⁾가 정치와 결합하면서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를 견고화하게 하고 있음.

2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민의 생활변화 결과

[‘경기도민의 생활변화조사’ 개요]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남녀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인구 제곱근비례할당 **조사표본** 2,000명 (여성 973, 남성 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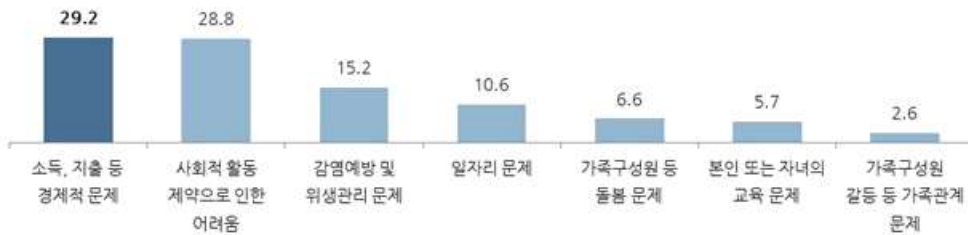
조사방법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1.7.27~8.3

- 6)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특정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 공동정책중심의 성주류화 전략, 공공분야뿐 만 아니라 생활세계(민간영역)까지 포함한 성주류화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음.
- 7) 성남시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2020)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은 남성일수록 가부장사회의 전통적 성역할에 맞는 여성을 칭찬하고 우대하며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보다 교묘하고 은밀한 양상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시대, 경기도민의 경험과 인식은?

-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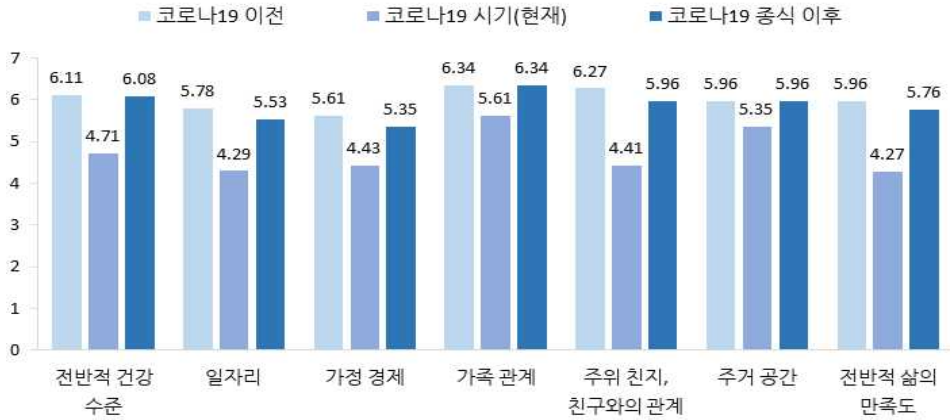


소득·지출 등 경제적 문제	29.2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28.8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15.2
일자리 문제	10.6
가족구성원 등 돌봄	6.6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5.7
가족구성원 갈등 등 가족관계	2.6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활동 제약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꼽힘. 성별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여성은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일자리, 본인 또는 자녀교육' 등의 어려움이 남성보다 높고, 남성은 '경제적 문제, 사회적 활동 제약, 돌봄과 가족관계' 등을 여성에 비해 더 큰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음.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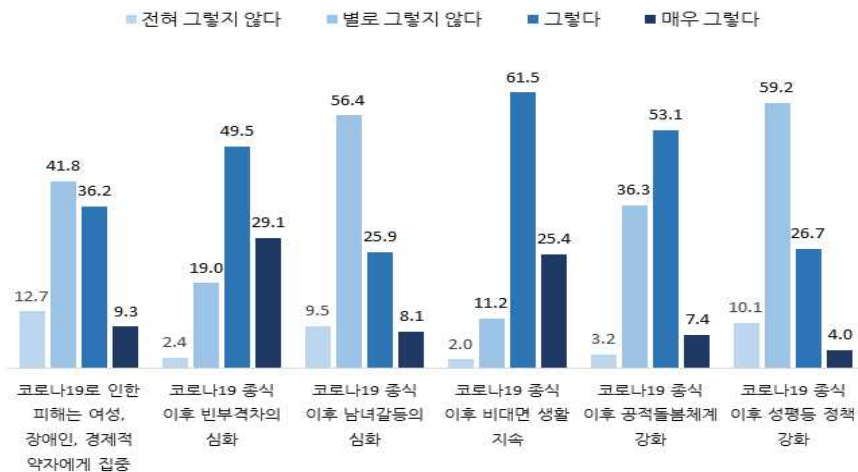
(단위: %)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는 낮음. 코로나19 이전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6점이었으나 현재는 4.27점이며, 코로나19 종식 후 예상되는 만족도는 5.76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낮습니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코로나19 전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서 여성은 -1.86, 남성은 -1.53의 격차를 보임.

• 코로나19 이후 생활영역 변화

(단위: %)



도민 86.9%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쇼핑부터 교육까지 일상적인 비대면 생활이 지속된다고 전망했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고(78.6%), 공적 돌봄체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60.5%)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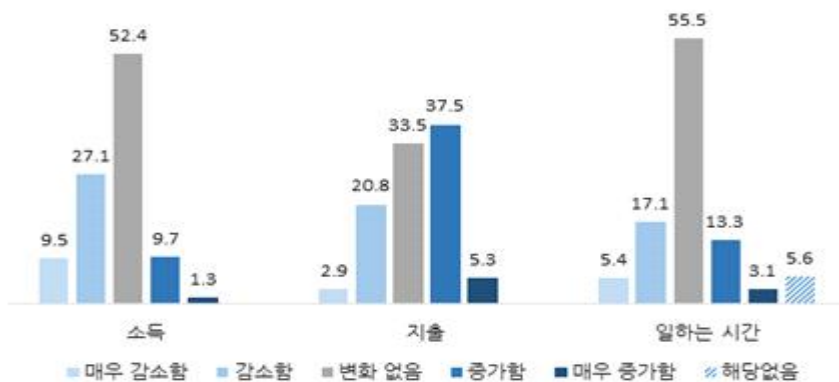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경기도민 삶의 변화는?

경제활동

[주요이슈] 경기침체로 인한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실직과 소득감소 심화

• 소득과 지출·노동시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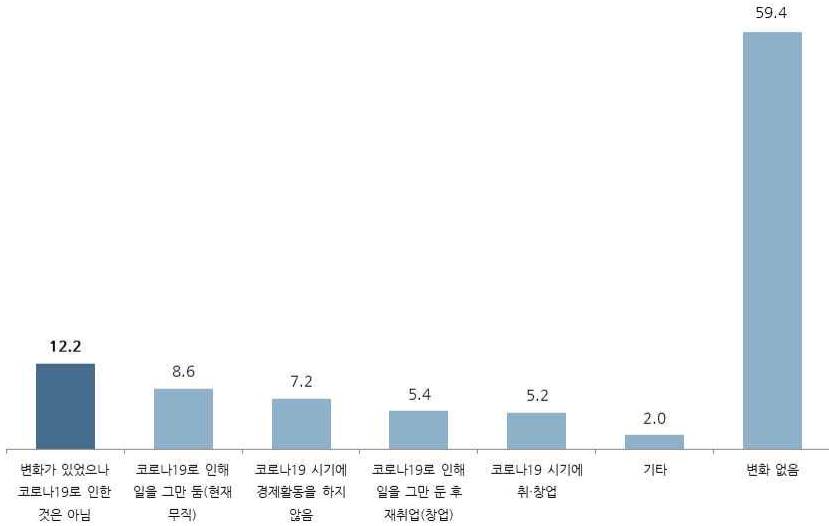
(단위: %)



코로나 이전보다 변화가 큰 항목은 '소득'으로 36.3%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매우 감소' 했거나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여성(38.8%)이 남성에(34.6%)에 비해 4.2%p 더 높음.

•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단위: %)



변화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것은 아님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둠(현재 무직)	코로나19 시기에 경제활동을 안 함	코로나로 인한 퇴사 후 재취업(창업)	코로나19 시기에 취창업	기타	변화 없음
12.2	8.6	7.2	5.4	5.2	2.0	59.4

코로나19로 일을 그만둔 경험을 한 경우와 그 이유에 대한 성별 차이는 큰 경우는 다음과 같음.

		여성	남성
일을 그만둔 경험		9.8	7.5
그만둔 이유	자녀 등 가족돌봄 때문에	13.0	2.9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30.9	40.6
	매출등 일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28.3	32.0

여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집중된 돌봄부담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근로자 여성의 경우 안전문제, 휴가 및 재택근무사용의 어려움, 권고사직/계약해지 해고 등 고용불안, 임금체불/임금삭감을 남성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직장에서 재택근무 등 '일·생활균형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7.7%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가사노동·가족돌봄 시간이 증가했다는 여성비율은 64.0%로 남성(55.8%)보다 높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증가가 가사·돌봄 부담을 가중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서 필요한 경제분야 정책

(단위: %)



필요한 정책에 대해 여성은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안전한 노동환경'의 선호가 남성에 비해 높았고, 남성은 '소득보전지원, 위기 업종·소규모 사업장 집중관리' 등을 더 선호했음.

가족생활과 일 · 생활균형

[주요이슈] 생활시간 변화와 여성 이중노동 심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증가와 가족생활 영역의 갈등과 스트레스 발생 등

• 코로나 이후 생활시간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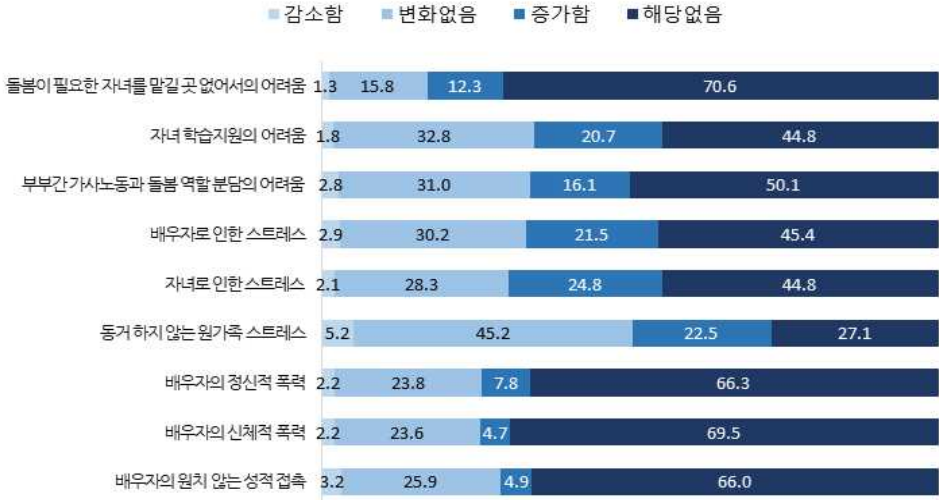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으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많은 30~40대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개인 여가시간은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으며, 성별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임.

	여성	남성
가정관리시간 증가	52.3%	42.5%
가족돌봄시간 증가	42.5%	32.6%
개인여가시간 감소	35.5%	27.5%

• 가족생활에서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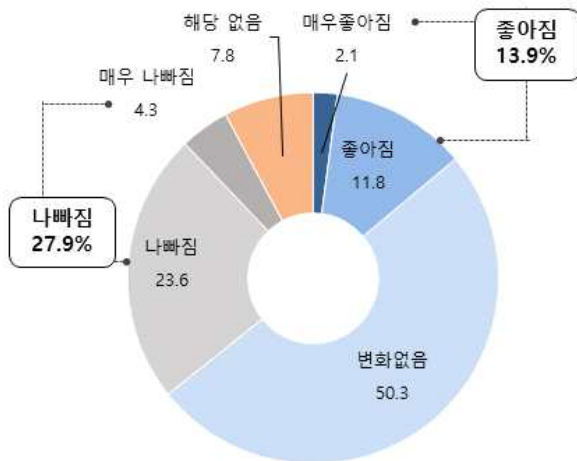
(단위:%)



코로나19 이후 자녀, 동거하지 않은 원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여성과 30~40대를 중심으로 두드러짐.

• 일과 생활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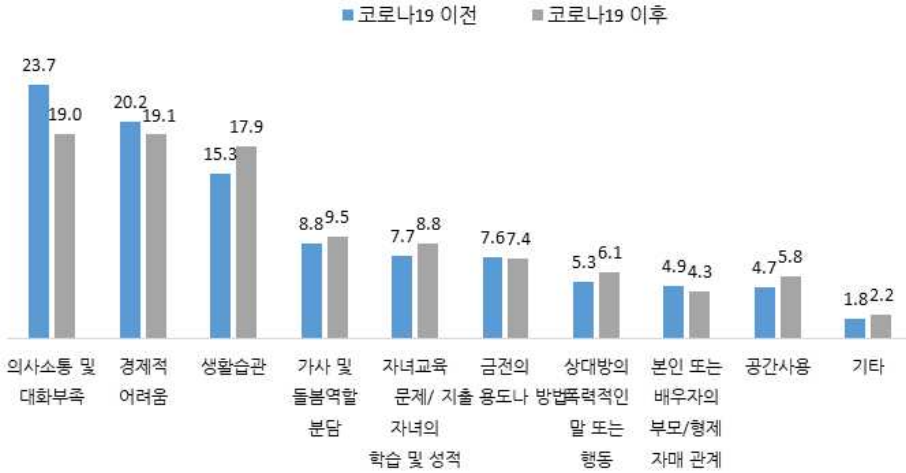
(단위: %)



일·생활 균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답에 비해 높으며, 좋아졌다는 응답은 여성(11.9%)보다 남성(15.9%)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여성(31.6%)이 남성보다(24.4%) 높음.

• 코로나19 전후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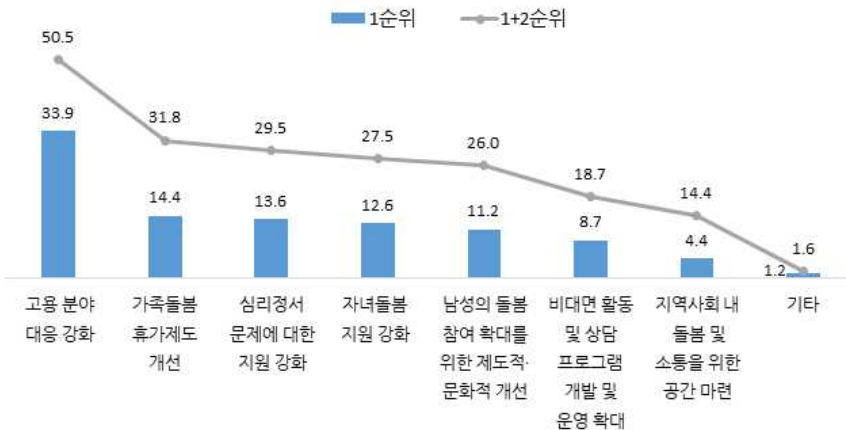
(단위: %)



가족구성원과 갈등원인은 코로나 이전 의사소통 및 대화부족이,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히며, 생활습관(늦잠/음주 및 흡연/늦은 귀가/잔소리 등), 가정내 역할 분담, 자녀교육 문제 등에 대한 응답이 증가함. 여성은 의사소통 및 대화부족(23.1%),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26.3%)을 가장 많이 꼽고 있음.

• 가장 필요한 가족정책은?

(단위: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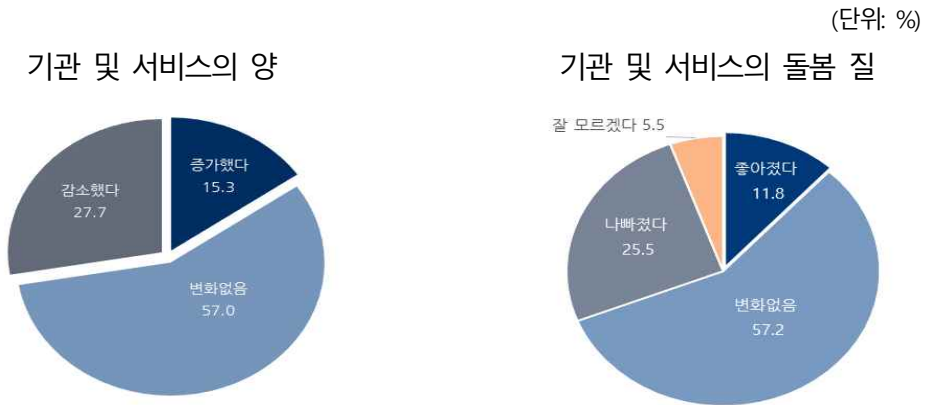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1순위로는 일·생활균형 강화 등 고용분야 대응이 가장 높게 꼽힘. 여성은 심리정서 지원(15.7%), 비대면 활동·상담프로그램 확대(9.0%)를 남성보다 많이, 남성은 돌봄휴가제도 개선(15.3%), 자녀돌봄 지원강화(13.5%)를 여성보다 많이 꼽음.

돌봄

[주요이슈] 공적 돌봄체계 휴원 등으로 돌봄노동의 여성화와 가정내 돌봄부담 증가,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종사자의 취약성 증가

가구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취학 전 영유아, 청소년기 자녀, 노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구원' 등으로 주된 돌봄방법은 '가구원 또는 친인척 돌봄'이 과반(55.8%)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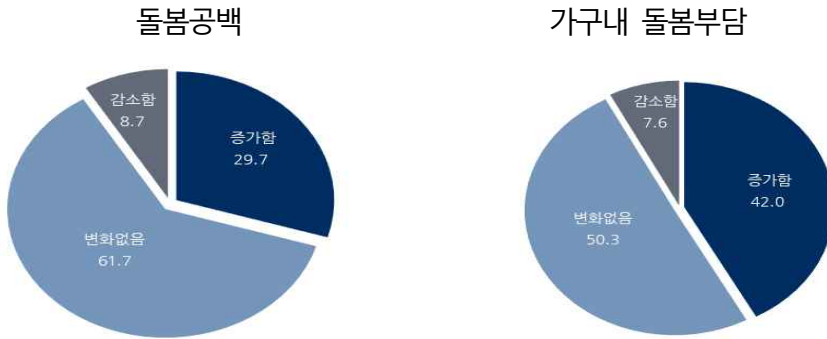
• 돌봄기관과 서비스의 수준 인식



주로 돌봄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1/4 가량이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의 양질 수준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며, 이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코로나 이후 돌봄공백과 부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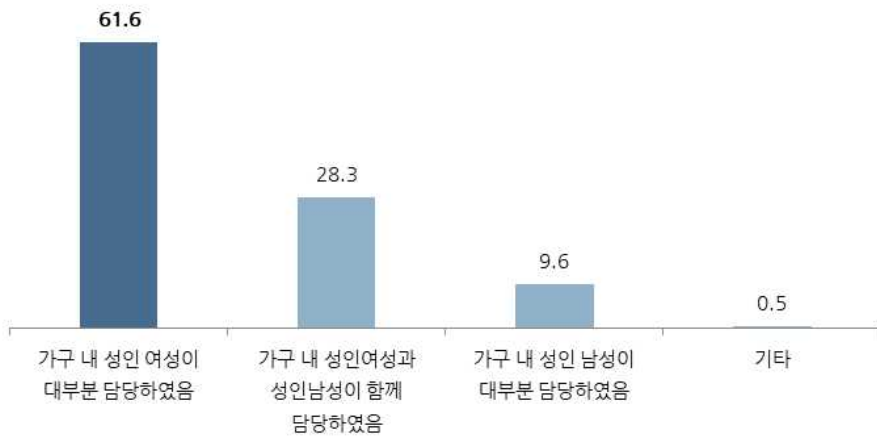
(단위: %)



돌봄공백과 돌봄부담 역시 커졌는데, 돌봄공백의 증가는 여성 34.0% 남성 25.8%, 돌봄부담 증가는 여성 47.4% 남성 37.4%로 성별 차이가 큼.

•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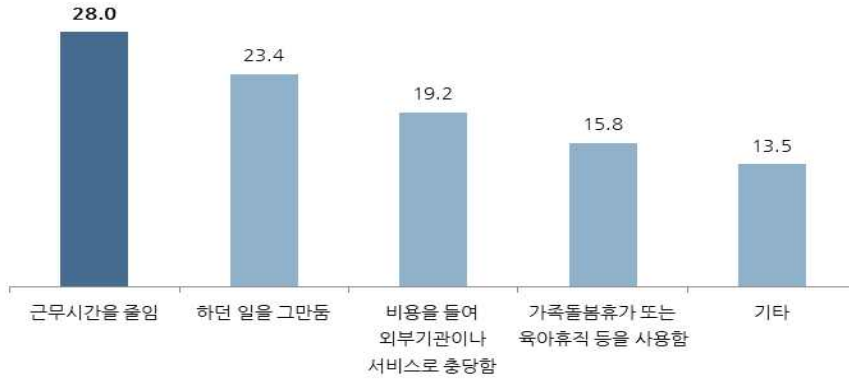
(단위: %)



한편 가구 내 돌봄부담이 증가한 도민의 경우, 가구 내 성인여성인 대부분 돌봄을 담당한다는 경우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돌봄노동의 여성가중을 보여줌.

• 돌봄부담 수행방법

(단위: %)



늘어난 돌봄부담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많고, 특히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여성(28.3%)이 남성(18.6%)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가장 필요한 공적 돌봄체계는?

(단위: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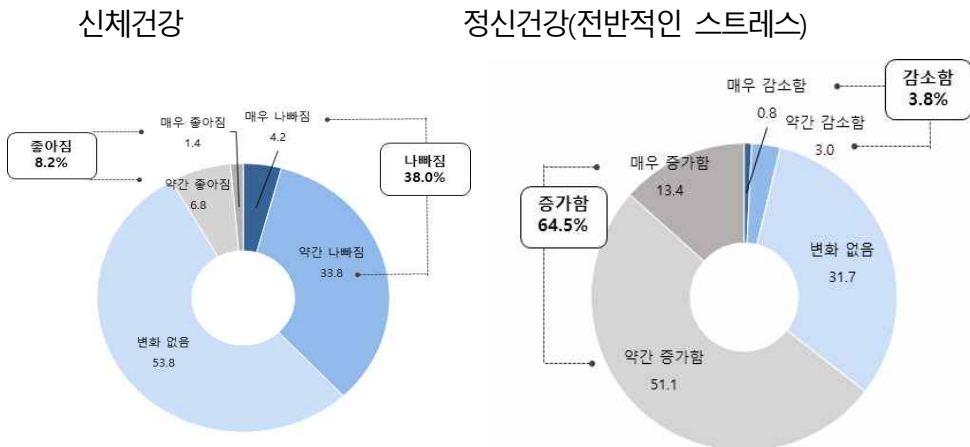
공적돌봄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은 '공립 돌봄시설 확대'와 함께, 유연근로제·재택 근무 등이 활용 가능한 직종과 사업체 범위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는 가능한 직종과 사업체 범위 확대, 가족돌봄 휴가 보장·확대, 긴급돌봄 이용보장 등이 상대적으로 높음.

건강과 젠더폭력

[주요이슈]
 (건강) 건강권의 성별 격차 확대, 스트레스 및 우울 증가, 의료접근성 감소 및 신체건강 악화
 (젠더폭력)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가정폭력 증가, 여성폭력방지시설 접근 제한, 가정 내 격리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거리두기 실패, 온라인 성폭력 증가 등

• 코로나 이후의 건강 변화

(단위: %)



신체건강이 나빠진 경우, 여성(43.3%) 도민이 남성(33.1%)에 비해 10.2%p 높고, 정

신건강 중 전반적 스트레스는 70.8% 여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남성(58.5%)보다 12.3%p 높습니다. 한편 우울감 역시 여성(59.8%)이 남성(44.6%)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등 성별 차이를 크게 보임.

• 배우자의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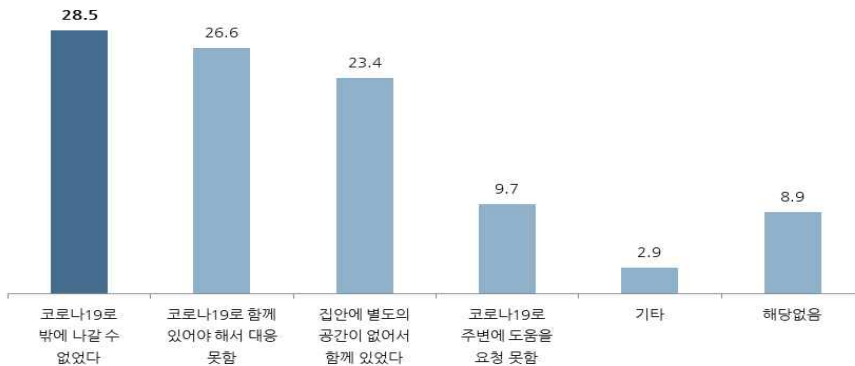
(단위: %)



가정폭력의 경우 배우자의 정서·신체적 폭력,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고, 배우자의 정서적·신체적 폭력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스트레스나 폭력 심화 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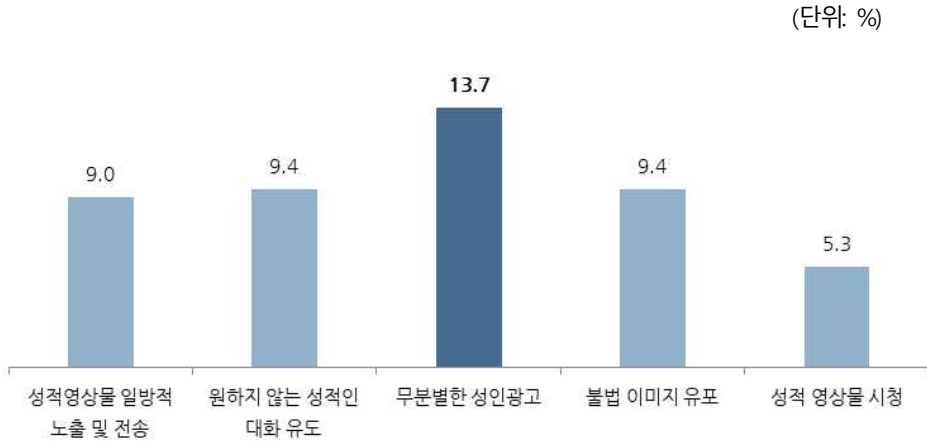
(단위: %)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나 폭력이 심화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스트레스나 폭력이심화될 때 어려운 점은 '코로나19로 밖에 나갈 수 없었다'가 28.5%로 가장 높고, 함께 있어야 해서 대응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함께 있었다는 경우 역시 높음.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서비스의 접촉 증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 유도 --> 5.0%

한편 코로나19 이후 SNS·채팅 등을 통한 성적영상물의 일방적 노출과 전송,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유도, 불법이미지 유포와 성적영상물 시청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좀 더 높고 '무분별한 성인광고'의 경우 여성(14.1%)이 남성(13.3%)에 비해 높음.

■ 포스트코로나 여성가족정책, 전망과 대응은?

몇몇 조사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 역시 여성·가족 분야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성불평등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기획이 필요함. 분야별 성불평등 이슈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함.

<p>보편적 돌봄정책 마련 돌봄공백이 새로운 위협이 아니라는 정책인식과 보편적 공공서비스 확대</p>	<p>여성 일자리 정책체계 현실화 고용유지에 중점을 둔 경력단절예방 정책과 경직된 근로방식 개선 등 사전예방정책</p>
<p>디지털 전환기: 일자리 이동지원 정책 새로운 디지털 산업구조에 따른 일자리 발굴과 관련 교육 등 전직 지원</p>	<p>평등한 가족문화 마련 가족내 불평등 해소와 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설계와 정책의제 개발</p>
<p>디지털 성범죄 정책 내실화 코로나19 이후 증가 변화하는 젠더폭력 대응과 도내 디지털 성범죄 정책 내실화</p>	<p>'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하고 새로운 관계형성 지원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평등하고 새로운 관계맺기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p>

코로나 시대!!

좋은 돌봄에 대한 고민들

김경임 / 숙지노인복지센터장

2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싸워오는 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돌봄이다. 보육, 장기요양, 활동 지원 등 정부에 의해 제도화되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를 통칭하여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또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라 한다.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는 여러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면 접촉의 위험성이 높더라도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사회적 돌봄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이자 중요한 필수 노동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낮은 보상 수준으로 시장에 맡겨진 방식으로 제도화된 사회적 돌봄의 일선에서 각종 위험이 돌봄노동자 개인 또는 이용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그대로 전가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

1. 필수 서비스로서 사회적 돌봄

2020년 2월 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되도록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계기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외부 돌봄기관이 문을 닫자 가정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과 함께 돌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었다.

외부 돌봄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 책임을 떠맡았던 '돌봄의 사회화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놓았고, 가족돌봄에 따른 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새삼 더욱 알 수 있었다. 상당수의 아동, 노인,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우선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2.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만든 돌봄의 사회화의 문제점

사회적 돌봄은 수행되는 공간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집합적 생활시설(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지역사회 이용시설(어린이집,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그리고 방문형 서비스(아이돌봄, 방문요양, 활동지원 등)가 있다. 앞의 두 유형이 집합시설인 탓에 위험도가 높는데 거주시설은 닫을 수가 없으니 외부인 면회 중지 등의 조치를 한 것이고, 지역사회 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한 것이다.

문제는 돌봄의 가족우선주의, 가족책임주의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가족 바깥에서 수행되는 돌봄서비스의 역할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차선책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바뀌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다. 대부분의 생활시설은 입소자에게 거주공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개인 공간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 모든 집합시설이 다인실로 운영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고 적은 돌봄 인력으로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이다.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이 밀집된 이 집합시설들은 코로나 시대 최고로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다.

3. 사회적 돌봄 공급체계의 불안정성 : 영세 자영업과 저임금 노동

보육, 장기요양, 활동지원 모두 조세나 사회 보험료라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수급자격은 법률로 정해지며 실행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데도 실제 일선 공급 주체의 80% 이상은 개인자영업이다. 2000년대 이후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도화 하면서 도입된 시장방식으로 영세한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대거 유입되었고, 공급환경과 문화는 서비스 판매와 수익 추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동과 노인의 안전과 건강, 삶의 질을 내세우지만 아동이나 노인 학대사건이 발생하고 규정 위반, 부당 청구, 불법 운영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개인투자 비용을 빨리 회수하고자 하는 운영자들의 수익추구적 운영은 공적 돌봄서비스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만이 아니라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에게 부정적으로 전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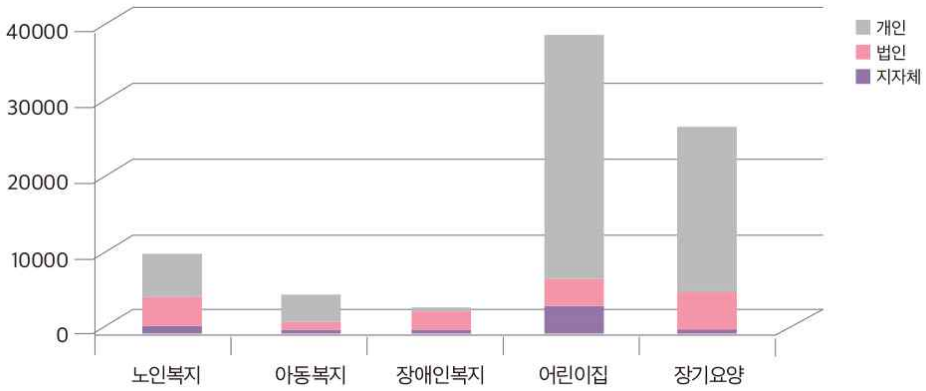
또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 수준과 절반도 안 되는 상용직 비율 상태에서 돌봄시장은 나날이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돌봄노동자의 낮은 자격 수준과 고용의 질, 열악한 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는 낮은 질의 돌봄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돌봄 수혜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4. 사회적 돌봄정책이 버려야 할 것과 갖춰야 할 것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봄과 돌봄노동자가 필수 서비스고 필수 노동자라는 목소리가 높다.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현재 우리의 돌봄 정책에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스며있는 가족책임주의와 개인 선택 만능주의, 시장효율 맹신주의를 벗어버려야 한다.

낮은 비용으로 문턱을 낮춰 늘렸던 공급 인프라의 자격과 책임성을 다시 물어야 한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좇는다면 취약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자격을 거두어야 한다. 또 손쉽게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봄을 전가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의 사회권이 국가에 의해 지켜진다면 가족과 이웃은 제각기 돌봄의 몫을 더하여 사회적 관계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림 1〉 사회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규모와 설립주체별 구성



자료: 2019 보건복지통계,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통계

믿을 수 있는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를 늘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제도를 정착하도록 하려면 자격을 갖춘 안정적인 조직이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용자를 보살피게 해야 한다.

현재 돌봄 시장에서 공공성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비영리조직이 더 늘어나고, 영세한 수익추구형 조직들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 돌봄 노동을 직업으로 선택해도 오래 일할 수 있고, 생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중고령 여성들이 견디면서 잠시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사람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생활이 가능한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또 다른 재난이 오고,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생활에 도입되더라도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영유아와 노인, 장애인을 보살피는 일은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책무다. 사회적 돌봄관계 안에서 돌봄노동자와 돌봄수혜자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은 그 도덕적 책무를 실현하는 한 부분이 되리라고 믿는다.

지금쯤 기존에 이어오던 돌봄 담론을 뛰어넘는 여러 상상력을 발휘해 정책을 구상할 때이다. 그동안은 돌봄의 사회화가 이뤄지면 모든 돌봄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해왔는데 공적 돌봄기관이 '올스톱'된 상황은 그 누구도 대비하지 못했다. 돌

봄의 사회화 그 이상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집중해온 돌봄기관의 양적 확장만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돌봄노동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시간을 확대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며 기관과 가정이 함께 돌봄을 맡아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19와 여성노동

김경희 /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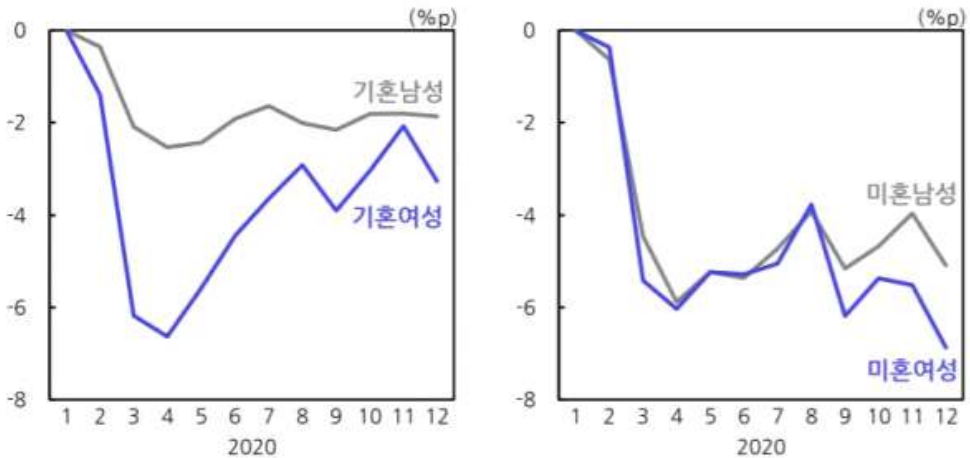
코로나 위기가 가져 온 성별 불평등

- 유엔여성기구의 마리아 호츠버그
 - “위기는 성차별을 심화시킨다”
 - 휴교로 인한 여성의 가사와 돌봄노동의 급증, 가정폭력의 증가, 보건의료분야 70%에 달하는 여성들의 감염 위험에의 노출, 취약한 일자리에 집중된 저소득층 여성의 해고 혹은 강제 휴직
- 케이트 반(Kate Bahn)과 동료들
 - 자연재해와 건강 위기는 ‘젠더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코로나 위기는 특히 여성 다수 직종인 건강 보건, 교육, 소매업 및 음식서비스, 포장, 유·무료 돌봄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자료출처 : 김현미(2021) ‘코로나시대의 젠더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코로나19가 가져 온 고용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

- 코로나19 충격을 직접 받은 대면 서비스업종: 여성종사자의 비중이 높아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 /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 위기를 가져옴.

코로나19 위기



주: 핵심노동연령(25~54세)을 대상으로, 연도효과와 계절효과를 통제한 연초 대비 고용률 변동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자료출처 : 김지연(2021),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 격차와 시사점. KDI보도자료 4월17일

팬데믹시대 여성 일자리에 어떤 일들이?

○ 요양보호사

- 건강을 위협받는 일터
: 끊이지 않는 집단감염, 코호트 격리
- 대다수가 40~60대 여성이 근무

○ 보육노동자

- 코로나가 시작되자 3월 취업 취소,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무급휴가 강요
- 페이백 요구
- 긴급 돌봄으로 노동강도 강화
- 대면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위협
- 보육교사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

○ 가사노동자

-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자리로 반토막난 소득

- 건강권 위협 : 고객 정보(여행정보, 자가격리 유무 등)는 깎깎
- 심각한 사생활 침해 : 어디 다녀왔는지, 대중교통 이용 문제 등
- 업무 준비도 자가 준비 요구 (고무장갑 직접 가져와서 사용 등)
- 정부의 재난지원 대상에서도 포함되지 못하는 가사노동자
- 콜센터 노동자
 - 열악한 작업환경
 - 끊임없이 발생하는 집단 감염
 - 지켜지지 않는 예방지침
- 숙박업, 음식점 서비스 노동자
 - 급격한 일자리 감소와 임금삭감
 - 상시적 감염 노출

코로나 시대 여성노동 정책과제

-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 여성집중 산업 대책 마련
 - 비정규직 해고 방지대책 마련
 - 고용상 성차별 판단 기준 마련
 - 특고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가사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최소한 지침 필요)
 - 소득 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 '돌봄뉴딜'로 양질의 상호 돌봄 실현
 - 돌봄노동자에게 고용안정과 정당한 임금 지급
 - 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 조정
 - 돌봄의 공공성 강화

포스트 코로나 우리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2019년 12월 31일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우리는 이것을 COVID-19라 부른다. 2020년 설 명절 연휴가 끝날 즈음 전염병에 대한 소식들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사스(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때 처럼 보통의 시민들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갑자기 전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야하고,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4단계 격상 같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며 평범한 일상을 혼란에 빠뜨렸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취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경험을 하게 한다. 휴교와 자가격리로 인한 여성의 가사와 돌봄 노동이 급증하였고, 가정폭력과 가족간의 갈등이 증가하였으며, 취약한 일자리에 집중된 저소득 여성의 해고와 강제 휴직이 이루어지며 우리세대는 IMF 시기를 떠올리게 되었다.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재택근무, 휴원, 휴교를 실시하며 사람들은 가정에 머물게 했다. 그로 인해 가족 안에서의 모습은 그 어느 때와 다르게 변화되었다. 2020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외식보다 가정식과 배달이 늘었다고 조사되었다. 많은 가정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여성은,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으로 집에 머무는 가족들을 위해 집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먹을 것을 제공해야했고, 그

과정에서 장보고, 요리하고, 배달음식과 밀키트를 마주하여 일회용품 사용에 적당히 적응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코로나 상황은 성차별적 문화에 기인한 제도적 지원에서도 재난시 여성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사실은 새롭지도 않다. 2020년 5월 가구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세대주가 남성인 우리 문화를 인식했다면, 재난지원금이 결국 남성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재난에 대한 지원의 권한을 세대주에게 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세우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한부모 가정과 다양한 이유로 세대주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은 이번 정책의 피해자였고, 결국 우리 사회의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재난 자체는 성별을 구분하고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그 피해가 달라지는 것은 그 사회가 성불평등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민의 생활변화 조사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상황은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르게 경험하게 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성불평등한 가족관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제 개발이 시급하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나

개인의 여성으로서 경험했던 가족, 일 속에서의 나의 이야기

이주영 / 통역프리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나' 공모전 수상자

1> 일하는 여성으로서

2019년은, 한국을 방문했던 관광객 수가 1750만 명을 넘긴 해였다. 한류와 정치경 제성장을 넘어서는 국가 경쟁력이 관광객 수의 증가로 보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들어서서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상황으로 한국역시 바닥을 치고 말았다.

비즈니스 통역과 관광가이드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나에게 그야말로 직격탄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언어 통역사였기 때문에 상대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상대국 정부의 매일 바뀌는 대응정책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COVID19상황과 더불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에 따라 통역일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여행사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업종은 여성들이 다수인 업종인 탓에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경제사정 때문에 통역가이드를 하는 다른 동료들은 파트타임 알바나 배달노동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국민배움카드 신청을 통해 관련업종 자격증을 더 따고, 약간의 지원금을 받았던 것은 도움이 되었으나 가장 본질적인 고용불안의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온라인(줌미팅 형식)을 통한 비즈니스 상담 등이 있었지만, COVID19상황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할만큼 일자리 기회는 줄어든 것이 현실이었습

니다. 고용의 형태에 따라 재택근무 등 고용불안이 전혀 없는 분야도 있지만 해외교류 및 이동이 필수인 통역이나 관광분야에서는 대책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체감했습니다.

2> 가족구성원속의 여성으로서

COVID19 상황은 가족 모두가 집에 24시간 들어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두었음에도 집안일은 온전히 엄마인 여성의 몫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에서 먹고 치우고 청소의 반복을 아이들과 함께 가사분담을 나누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한 시간이 계속되며 우울감, 무기력증이 느껴져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진학을 했음에도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이어가고, 그 외에 선후배를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안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스러움과 불안감은 혼재되어, 어느 날은 아이에게 다정하게 해주다가도, 나도 모르게 나의 불안감을 잔소리로 쏟아놓고 갈등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3> 마무리

위에 언급된 상황으로 인한 정신건강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우울감, 불안 등으로 밤잠을 설치고 어디에 하소연해야 될지 몰라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지인들을 통해 격려도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한 마음도 내려놓게 될 즈음, 평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난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가장 먼저 혹독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성, 어린이, 학업 중에 있는 청소년, 청년, 노년층 등등 일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싶으나 내 전문분야에서 일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겪은 사람이라면 매우 힘겹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에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 구하는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 금액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고용의 불평등과 지속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함께 적용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전합니다.

세계최고의 방역을 보여준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드러난 불안정하고 불공평한 고용에서의 성별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행처 수원시가족지원센터
발행 및 편집인 류명화
발행일 2021. 11. 10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29-7 신교동타운 3층
T. (031)245-7514~5 **F.** (031)245-7520
E. sufamilycenter@hanmail.net